朝鮮日報 刊 (火)日一

# 獨總統俄然硬化！ 又復爆彈宣告發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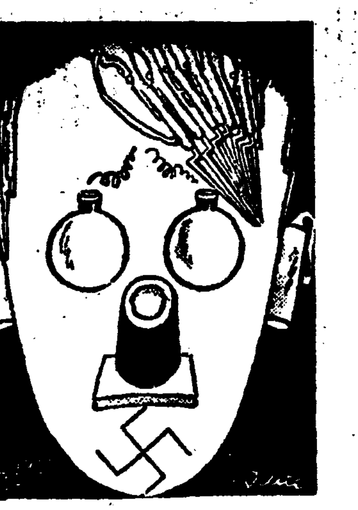
## 佛白도國民投票로對獨政策可否를確定하라

## 主權侵害는斷乎拒否

【伯林三十日發同盟】 히틀러總統은 三十一日 로카르노會議協定에 對하야 正式으로 回答할豫定이엿스나 今回總選擧가 거이 百%의 壓倒的勝利를 確保하게된結果 俄然態度가 硬化되야 近近 新國會를 招集하고 再次 爆彈的聲明을 發表하야 로카르노會議의 協定案에對한 獨逸政府의 方針을 宣明할 意向으로 解釋된다 右聲明에서 히틀러總統은 프랑당外相의 外交演說에 應酬하야 特히 如左히 强調할 것으로 期待된다

一、프랑당外相이 新平和機構에關한 交涉의 前提로 라이란드進駐部隊의 撤退를 要求하고잇스나 獨逸政府는 右要求에는 絕對로 讓步할수업다 그리고 다시 新非武裝地帶의 設置、國際警察軍의駐劄等 獨逸國主權과 相容할수업는 條件은 斷乎拒否한다

一、英佛白各國政府도 獨逸政府에 본바더 人民投票를 實施하야 獨逸政府에對한 現在의 政策을 全國民이 全部支持하느냐를 確定하기를 慫慂한다



히틀러獨總統

## 今回選擧結果야말로

# 『條約國』에對한 獨逸國民의回答

## 絕對勝利의國民投票結果로 對外政策益益强化乎

【伯林三十日發電通】 二十九日의 獨逸國民投票는 나치스의 外交政策 特히 로카르노條約廢棄 라인進駐問題에 對하야 民意를 問한 投票인것만큼 祖國愛에 불타는 國民은 모다 贊成의赤心一票를 投하야 나치스政策支持를 表明하야 드듸어 贊成投票는 有權者總數의 九十九퍼센트 即 佛國의 全人口以上에 相當하는 結果를 보게되고 獨逸全土는 方今 擧國的으로 나치스萬歲』『하일·히틀러』의 喚聲에 充滿하엿다 政府當局은 이擧國的支持야말로 即 로카르노條約國과 聯盟에對한 獨逸의 明快한 回答이다 라고 그對外政策에 다시 一層 確信을 굿게가지게된 모양으로

獨軍의라인進出！ 히틀러獨逸總統은 去七日 駐獨各로카르노條約國大使를通하야 로카르노條約破棄를通牒하고 同時에 라인란드非武裝條項을蹂躪하야 大部隊를 同地方에 集結한結果 伊에紛爭問題의 一段落으로 一時安定되엿든 歐洲政局不安은 이에再燃되엿다 寫眞은 (上)威風堂堂히 쾰른市로 드러가는獨軍 (下)入城하는 獨軍을 歡迎하는 코브렌츠市街

…이라고한다 아직當地에서는 犯人原因等 不明이다

# 英佛白三國空軍 相互援助具體化

## 四月六日부터『브룻셀』에서 三國參謀本部會議

【倫敦三十日發電通】 英國政府는 三十日의 閣議의結果 佛白兩國의要求를 容認하야 英佛白三國參謀本部會議를 四月六日부터 브룻셀에서 開會하기로 同意決定하엿다 會議는 三日間의 豫定인데 確聞하건대 그中心議題는 挑戰치안코 攻擊을 바든 境遇에 英佛白三國空軍相互援助의 强力한 協約을 具體化하는데잇고 其他一般的軍事的 協力도協議할豫定이다

### 英政府對獨決定

【倫敦三十日發同盟】 볼드윈首相은 三十日午前 首相官邸에 重要閣員會議를 召集하고 英佛白三國參謀本部間의 作戰協定에關하야 協議를 遂한後 如左히 決定하엿다

一、英佛白三國軍當局은 히틀러總統의 回答如何에不拘코 十日以內에 參謀本部間에 會議를 遂할것

一、히틀러總統이 右回答에서 로카르노會議의 協定案을 受諾할境遇에는 獨逸政府도 會議에 招請하야 로카르노體制에 代位할 相互援助機構確立의 豫備協議를 開始할것

### 獨逸總選擧 最終暫定的結果

【伯林二十九日發同盟】 獨逸總選擧의 暫定的最終結果는 三十日午前一時半如左히 表하엿다

投票權者數 四五、九五一、〇八三
投票總數 四四、九三一、〇三八
나치스派 四四、三八九、一四〇
反對派 五四二、八九八
棄權數 一、〇一九、〇五一

# 對獨紛糾에對備 地中海艦隊撤還

## 注目되는英政府政策

【倫敦卅日發電通】 지브랄탈로부터 傳하면 伊에紛爭에 關聯하야 압서 地中海에 集結된 英國艦隊中戰艦로드니號는 三十日 本國을向하야 歸國의 途에 올랏는데 三十一日에는 驅逐艦二隻 四月一日에는 驅逐艦一隻 潛水艦一隻이 차례로 本國에 歸航할터이오 또 이外에 阿弗利加方面의 英國軍艦도 可及的 速히 本國에 撤歸하기로 되엇다는 情報도 傳하고잇다

英國海軍當局에서는 此等諸艦의 本國歸還은 乘組員에 對하야 復活祭休暇를 與하기爲함이라고 言明하엿스나 消息通側에서는 右는 對獨問題의紛糾에備하고저 此際에 英國이對伊策을變更하야 獨佛緊張關係의 緩和에 資하려는 자못注目할 目的을가진것으로 結局英國으로서는 地中海上으로부터 英軍艦全部의 撤歸를 行할것으로보인다 이結果 伊太利도 그對英態度를 緩和하야 로카르노條約國提議를 承認하고 英佛白의 參謀本部會議에 參列하는一方 海軍條約에도 參加할 氣運이 釀成될것이 아닌가 觀測되고잇다

## …極秘裡에進捗

【羅馬三十日發同盟】 十三人委員會는 伊에 兩國間 紛爭和平案에 關하야 全權을 議長마다리아가氏와 아브놀事務總長에게 委囑하얏來 和協工作은 極秘裡에 뭇소리니首相과 委員會間에 進捗中이라고 報導된다 뭇소리니首相은 마다리아가氏에게 對하야 羅馬訪問을 要請하엿다고 傳한다 伊太利政府當局은 報道를 否定하면서 交涉事實을 確認하고 如左히 言明하엿다 뭇소리니首相이 마다리아가氏를 招致하엿다는 報道는 全혀 根據가업다 和協交涉은 아직 準備段階를 나서지안햇다

# 新政府組織着手

## 政府主席엔蔣克强氏

【天津三十日發同盟】 山西共產軍의 主力은 目下 陽泉을 中心으로 駐屯中인데 徐海東의 約三千名은 交城古交鎭附近을 掠하야 前衛에 進出하야 山西北部의 神木府谷方面의 劉志丹軍과 連絡을 取하려는中이다 그리고 現在 山西省의 共產軍은 中國共產黨의 精銳를 集中한것으로 第三인터나쇼날로부터 李德이(露聯人)重要使命을띄고 參加하야 共產黨과 紅軍組織을 如左히 編成하엿다

一、山西外蘇維埃政府主席에 蔣克强을 政治委員에 毛澤東을任命

一、共產軍總指揮에 徐海東을任命

一、中國共產黨軍西安總司令에 彭德懷를 任命

一、救國司令에 劉子丹을 任命

그런데 共產軍政府는 臨汾에 移動한 模樣이다 現在의 紅軍總數는 約二萬內外라고한다

# 華盛頓政府、俄然 中國財政을援助

## 紐育에中國銀行支店을設置

## 英米兩國角逐激化？

【東京電話同盟】 去三月初旬 上海銀行公會長陳與甫氏及 張國際貿易局長이 渡米한것은 米中兩國爲替關係에 어떠한 局面打開工作을 爲함이라고 傳하고잇던바 三十日 某所着情報에 依하면 南京政府는 드듸여 爲替管理의 中心點을 倫敦으로부터 紐育에옴길 意趾를 定한 모양으로 中國銀行이 紐育支店開設의 許可申請을 州當局에 提出하엿다 一方 米國大藏長官모-겐도氏의 言에 依하면 다시 右事實을 裏書하는것이다 即米國政府는 昨年十一月 南京政府로부터 四千오스의 銀을買入하얏는데 最近 南京政府는 右代金의 一部로 一千萬弗의 金을『이어마-크』하기로 決定하엿다 聯邦準備銀行이 『一千萬弗을 이어마-크』한것은 米國의 銀政策의結果 混亂한 中國의 通貨政策에 對하야 다시 米國이 援助의 손을 뻐친것으로 一方으로보면 倫敦으로부터 紐育에로 乘替하려는 南京政府의 爲替政策을 證明하는것이오 英國政府로서보면 昨秋 南京政府에 斷行케한 幣制改革으로 中國을米國으로부터 切離할수잇섯다고생각하고잇던때의 일이므로 今回 一千萬弗의『이어마-크』設定은 中國을中心으로한 英米의角逐이라고極히 注目되고잇다

(寫眞은 루大統領)

### 四月三日閣議中止

【東京電話電通】 來四月三日은神武天皇祭에 當하므로 政府는 同日의 閣議를 中止하고 特別한 必要가업는限 閣議를 開하지안키로 決定하엿다

# 英國大建艦計畫 英海軍記者暴露

## 三千五百萬磅으로總噸數十七萬五千噸

## 來年一月末까지着手

【倫敦三十日發電通】 데일리·텔레그라프紙海軍記者헥터·바이워터氏의 暴露한바에 依하면 英國海軍은 最近의 列國海軍情勢에 鑑하야 建艦의 早急實現할 必要를 認定하고 來年一月末까지에 如左한 大量建艦에 着手하기로 되엿다고한다

戰鬪艦 二隻
巡洋艦 五隻
航空母艦 一隻
驅逐艦 十二隻以上
潛水艦及 프루-프艦若干隻

그리고 海軍에서는 右外에 來年年末까지에 다시 三隻의 巡洋艦을 建造할 豫定이다 以上諸建造計劃을 合計하면總噸數十七萬五千噸이 費用三千五百萬磅이다

# 英國의經濟뿔락 基礎崩壞의徵兆

## 오타와會議廢棄通告를要請

## 印度國民議會서決定

【뉴델리三十日發電通】 印度立法會議는 國民會議派가 提出한 오타와 大英帝國通商協定廢棄豫告를 英本國政府에 發하도록 印度政廳에 要請하는 決議案을 三十日表決한結果 七〇對六五의小差로서可決하엿다 議會는 이決議를印度政廳으로 하여금 本國에 廢棄豫告의 通牒實行을하지안흘수업게되는것을 잇는다 茲에 大英帝國經濟블락의 基礎인 오타와協定은 印度의 一角으로부터 崩壞의徵兆를 示하게되엿다

### 實行豫算案 今日中查定終了

【東京電話電通】 來特別議會에提出할 昭和十一年度 實行豫算案은 三十一日中에 大藏省의 查定을 終了할 豫定인데 三十一日의 定例閣議는 右實行豫算案을來十日閣議에附議하기로되엿다

### 人事·集會

▲今井田總監 三十日午後三時二十五分東京驛着入東 明年度總督府豫算協議、令孃結婚式等으로 四月下旬까지 滯東豫定

▲南廷駿氏(每日申報記者) 三十日忠南牙山郡東川里에서 遭叔父喪

## 時題小議

# 入學均等保障論 (上)

## —學父兄과當面課題—

(六) 安在鴻

水原邑의 某有力한 市民은 吾人에게 말하엿다 『水原의有力者들이 當初에 高普를設立하자는 條件付로 基金을 모앗는데 中途에 當局方針이라고 農學校로 하라고해서 매우 難處하여 하는中이다 또는 道費로서 家政婦人學校를 맨들엇는데 원체 日本內地人標準으로 되엇스매 朝鮮女子가 入學한대자 찌덕지도 안치마는 그나마 百名사람이나 應募한 朝鮮女子에 겨우네名박게 入學이 아니되엇스니 딱한일이다』고 하며 긴한숨을 내쉬엇다 그는 眉字에 悲憤을 띄우고 혼자말로『學校를設立키도 마음대로는 못되는일이오 道費로 세운學校에도 朝鮮人은 단 몟名 들어갈수도 업고…』하며 기픈思案에 드는것이엇다 嶺南의 某郡에서 子女의 中等學校 入學때문에 入京滯留中인 某氏는 그地方의 知名하는 家門의 一紳士이라 落榜한아들을 다리고떠날臨에 面目이 업는듯이 망사리고 잇스며 東京留學보내고 뒤스돈대기 어렵든 述懷談을한다 아우가 高普를 卒業하고 그예 專門學校에 入學하겟다고 하기로 그리하라하엿더니 過히 鈍한편도 아닌데 웬걸入學이 되어야지!애를쓰든몟等 쓰면서 집에돌아와서 東京留學을 꼭보내달라고 하겟지요 學資어려운生각에 얼른대답을 못하엿더니 하도애가 말려하기에 마지못해 보내주엇지오 몟해동안에 저도모르게 땅마지기나 차츰차츰 팔어들엇는데 卒業하고와야 就職할길도 막히고』하며 금작이 慘憺한 氣色이 얼굴에 떠돌앗다 이는 또 일응열어 『무어 그때문에 그의 敗家하사랄도 전지하니한데…』하며말끄을 아물리지 안는다 吾人은 여기에서 讀者와함께 敎育朝鮮의 흉흉치아니한 悲慘을 알것이다 ×

첫재 高普不認可 方針과水原의 位置에 關하야 一考하자 水原은 京城近接한 都市이라 거기에 一個의 實業學校를 더둠이 可치안함아니나京城의 高普가 不足한 現狀이에 한개의 高普를두어 左水原 右開城으로 京城文敎의 要地를삼음이 차라리 妥當치아니한가? 여기에서 高普設立合이 하나이다 둘재 水原에 設立된 道費의 家政婦人學校에 入學 한대자찌덕지 안타는것은 朝鮮人의 鄕土文化와 特殊慣習 實際의 見地에서 專門學校以外의 無理한 共學은 不可하다는것을 이약이하는것일이 그둘이다 셋재 百名의 應募者에 入學된朝鮮女子 겨우 네名이라는 거정과 嶺南의 某氏가 京城의 專門學校에서 그아우가 入學치못하고 東京에가게되어 僅少한 家產을 쳐지안케 消費하엿다는것은 벌서부터 共學制로 決定된 專門學校 其他高級의 實業各學校에서 一割乃至二三割박게 아니되는 朝鮮人入學難이 얼마큼이나 그文敎및經濟上에까지 深刻하게 影響되을 證言하는 바이다 넷재卒業하고와야 就職할길도 막히고…』의喚聲에는 朝鮮靑年의 進路가 얼마큼이나 光明이 적은것을 보임이오 드듸어는 現實朝鮮의 만흔問題가 潛勢되는 消息의 一面相을 보여줌니다 무릇當面의學을 닥금이 반드시就職의 手段으로向은아니지만 일홈하고 生活을 維持하는길은 職業을 가저야될이 우선正當한 方策이라 就職의길이 制限되엇슴새 就學의 門부터 좁여노흔것이니專門學校 入學率問題는 朝鮮文敎의 府의主要懸案이오 朝鮮人文化와 밋그生活生存의 前途에 걸처잇는 容易치안은事態인것이다

×

各階級의 敎育機關이 매우不備한 狀態인것은 이미말고남은 바이오 中等學校 및專門學校가 朝鮮의분수로도 巨大한 不足이잇는것은 社說欄에서 指摘한바이라 여루다고數字를 指摘할바아니다 그러나 吾人으로 百步를물러나와 이를論할지라도 專門學校를 着實增設함은 必要하지언정 朝鮮人의 入學率을 決定的低下한 水準에 두는것이不可한것이오 나아가서는 그就職就業의 길에잇서 역시 甚大하게 制限되는것이 問題이다 이미 敎育의 機會를 均等할수업는데 또그로因하야 家產을 限外로 消耗하게 되는 事情이 派生되게하고잇다 吾人은 이에서 朝鮮父兄의 專門學校入學率均等保障運動의 必要를 提唱하고 이를 主張하려한다 이는 父兄과 밋學政當局의 甚大한 關心事일것이다

## 八面鋒

◇全國民的信任을바든 히틀러總統、獨逸國民의總意를 내세우고 强硬外交에拍車를더할듯지。

◇『로카르노』條約쩍이 문허지는것이거정이아니라、섯년『빠르트』의無軌道橫行이 可慮。

◇全朝鮮의 不良少年囚가 一萬八千名으로 三年間에 四千名이늘엇다고。

◇人間의性善說 性惡說은 別問題로하고、兒童의不良은 父母의罪일가 社會의罪일가。

◇大京城府、一日로써誕生、區域이커짐은 오막사리의增加와엇더한關係가 잇슬고。

◇冷水먹고 이쑤시는族의 허울조흔發展만은 新會人의存在性을動일터。

◇往十里、西氷庫도 政體文化京城의 알人指數를 고무밧게 되더면 多幸。

京城 金銀地金合分析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合資會社杉山商會 電話本局(2)〇〇七四番

外科 X光線
医学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講師 受驗界權威者 イロハ順 高岡讓、佐藤次郎、守屋秀夫、瀨木昆太郎、宮原眞太
生徒募集 高等(夜間) 中等(晝間) 學校受驗科
每年合格者最高率을엇고잇는
京城府古市町 京城高等豫備學校 (電本2〇三三)

商標 千 고추가루 都賣
釜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男子部—官廳銀行會社會計實務員養成 ◇女子部—タイピスト科(簿記珠算兼修) 短期修業 就職斡旋
◇願書受付四月五日限 ◇學則送呈 京城府太平通二丁目大漢門橫入 電本(2)四七六一

원동물감 (商報送呈)
德世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 電話光化門三八番 振替京城八〇四番

記念用 賞品用 印入タオル
優勝旗 團旗 校旗 國旗 會旗 船旗 賣出し旗 附屬品

目錄請求次第無料送呈
京城府長沙洞八拾五番地 東洋染織捺染部 電話光一三二八 振替京城二〇六四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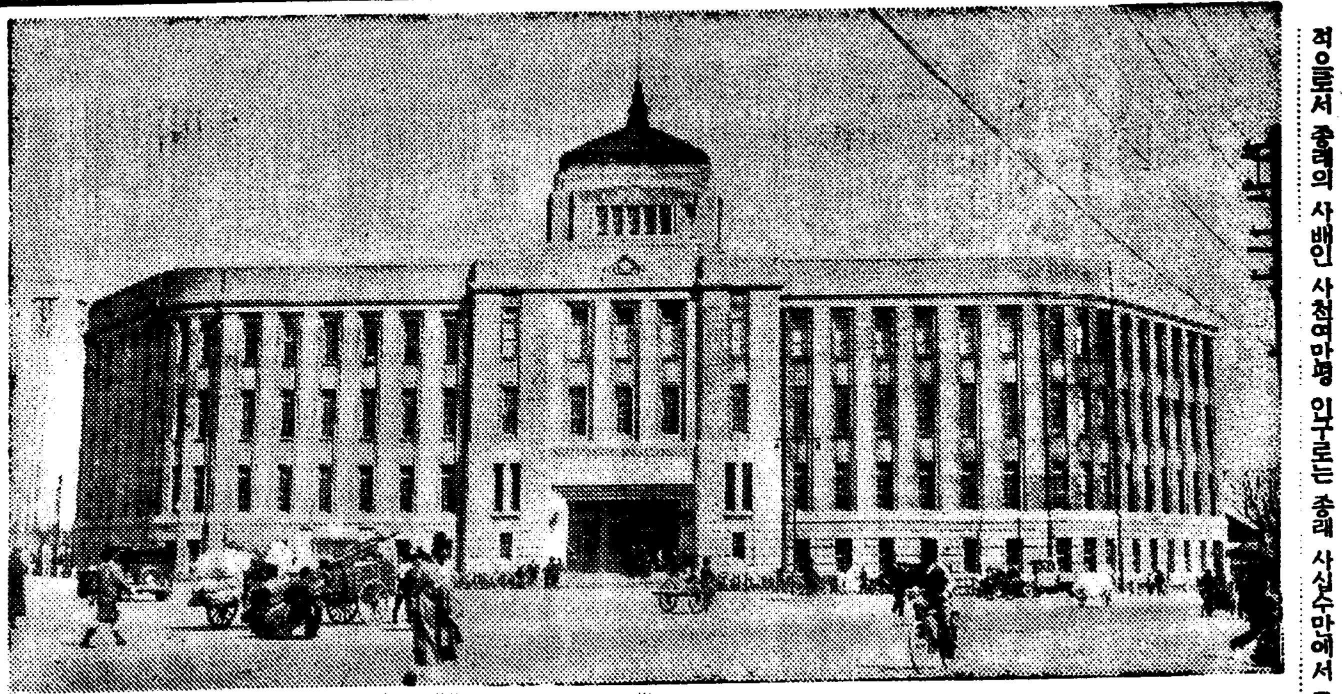
四月 京城春季競馬大會
三日(祭) 十一日(土) 十七日(金)
四日(土) 十八日(土)
五日(日) 十二日(日) 十九日(日) 開催
於京城東大門外競馬場
朝鮮競馬俱樂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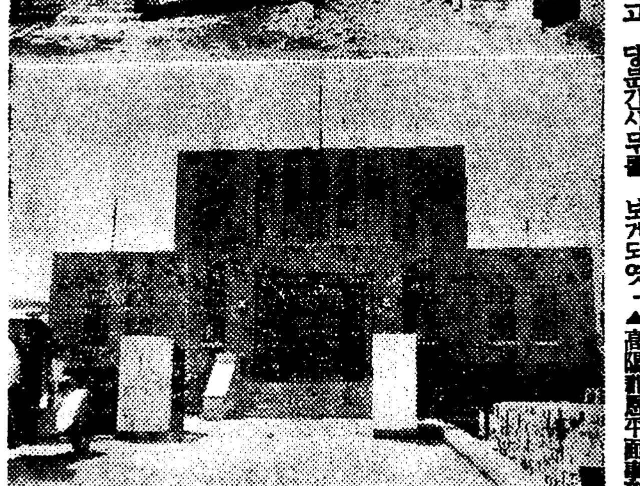
치질 肛門病科專門 東光醫院
大田本町一丁目 (電話四九番) 藥物治療顧問 柳東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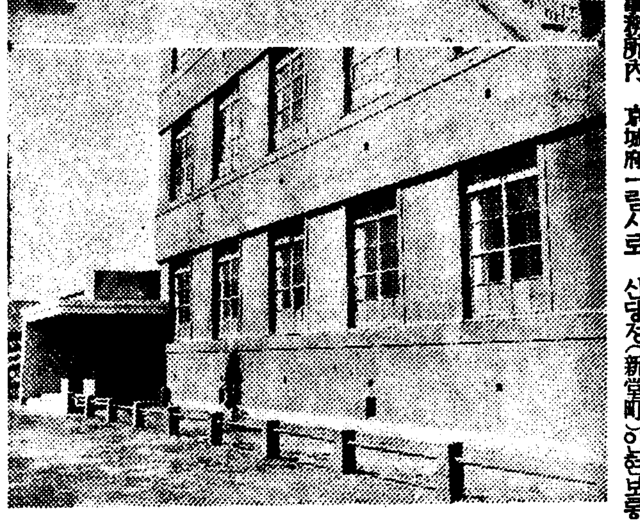
忠南溫陽溫泉 溫陽溫泉
神井館
天安驛부터溫陽溫泉까지二十分 汽車賃割引 滯在割引

# 五百年漢陽歷史的變貌
# 今日부터 大京城出現
## 面積은四千萬坪、人口는七十萬으로
## 大衆生活에 影響은무엇?

대망의 대경성은 이날이밝는 사월일일로서 마침하에 인사를 드리게 되엿다 양춘사월난화한 봄기운이 차저와 새엄이트려는 새철기를마저 산과 성벽에 둘러싸이엿든 오백년대경서울의 울을 버서나 동으로 남으로 서로일단의 비약을보아 면적으로서 종래의 사배인 사천여만평 인구로는 종래 사십수만에서 륙십만이 되다사십만 대경성에서 칠십만대경성으로 서울의 면목은 새로워지며 근대도시로서 행정산업 경제 교육에 신국면이 가지가지로 전개 되게되며 부민생활에도 유형무형으로 변함이만케된다 그러나 대경성의 출현이 부민대중생활을 과연얼마나 복되게할것인가는 추후에오는 시설과제도의 변천에매겨밧게 업슬것이다







(사진은 머리로부터 경성부청、영등포、출장소、룡산출장소 동부림시출장소)

## 府出張所는三個所로
## 從來事務를分掌
### 當分間은各面事務所에서處理
### 府民의注意멧가지

행정구역이 변경되여 종래경성부본청에서 보든 사무중에서, 호적(戶籍)거주(居住)인감(印鑑)매장、화장(埋火葬)기타의 여러가지증명에 관한사무도 룡산、동부、영등포의 각출장소에서 보게되여 각출장소관내에서는 본청까지 오지안코도 각 출장소에서 편의하게 할수잇게되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여러가지로 사무의 정돈되지안흔관계로 신편입구역 중일부는면사무소내에 「경성부직원파견소」(府職員詰所)라는간판을 부치고 당분간사무를 보게되엿다 사무취급장소와 구역은 다음과갓다

取扱場所 取扱區域
▲京城府廳 東部出張所區域의內 昌信町 崇仁町 元延禧面의地域一圓
▲高陽郡恩平面事務所內 京城府職員詰所 恩平面內京城府에編入된地域
▲龍山出張所 元龍江面의地域一圓
▲東部出張所 元漢芝面의地域一圓
▲崇仁面事務所內京城府職員詰所 崇仁面內京城府에編入된地域
▲永登浦出張所 元北面의地域一圓
▲始興郡東面事務所內 京城府職員詰所 東面內京城府에編入된地域
▲金浦郡陽東面事務所內 京城府職員詰所 陽東面內京城府에編入된地域

### 面職員全部留任
### 東部所長洪佑完氏

이번새로되는 동부출장소의 초대소장은 경성부의 호적계장으로잇든 홍우완(洪佑完)씨가 임명되엿다 홍우완씨는 수원(水原)을고향으로하고오래동안경성부에서 시무하여온관계로 경성부행정방면에는 정통한 사람이다、이번에 출장소중에서 조선인측과 관계가 깁흔 동부의소장으로 임명되여 경성의소부윤으로서 활약하게되엿다、그리고 룡산출장소는전의금자(金子)씨이고 영등포는삼고(森高)호장이 그대로 류임되고 도신편구역의 면직원들은 하나도 정리되는것이 업시 부직원으로 유임케되다

### 東部出張所는 仁峴公普에서

현재출장소중 룡산(龍山)출장소는전에잇든 경정(京町)에 잇고 영등포(永登浦)출장소는 종래의 영등포읍 사무소에서 그대로 사무를보고 동부출장소만은 방금 신설정(新設町)에 신축중임으로 림시로 신당정(新堂町)인현보통학교(仁峴公普)내에서 사무를보게되엿다

### 新附區域土地事務
### 高陽郡廳에서取扱

행정구역의 변경에따라 토지관계의 사무취급도 달러질터인데 고양(高陽) 시흥(始興) 김포(金浦)각군에서 경성부에 편입되는지역의 토지관계문부는 경성세무서청사의관계로 고양군세무서창고에 보관키로되엿슴으로 결국그지역내의 토지에관한등록、열람등의사무는 고양군세무서내경성세무서원주재사무소에서 취급케된다

### 盛大한祝賀式

이날 경성부에서는 부역확장축하회(府域擴張祝賀會)를열게된다 식은 조선신궁과 경성부에서이천명을 초대하고봉고제(奉告祭)를하고 일방에는 오후한시부터 보통학교와 소학교아동들 사만 구천명의 동원으로 기행렬(旗行列)을 하게되는데 신구역과구구역일대로 행렬을지어 다니며 이날의경성의 탄생을축하하며 널리그동안 선전케될것이다 그리고 아츰아홉시부터 오후다섯시까지 경성의 중심을돌아 이며 경성전기회사에서는 아츰부터 꼿전차를 운전케되며밤에는 경성부유과권(圈)사회과장의 축하 방송도잇슬것이다

# 洞名도잘가거라
## 오늘밤으로郡과離別할
## 七十六個里卅萬住民

오래동안나려오며 뭇떠들든 경성부의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劃令)과 행정구역확장안(行政區域擴張案)은 비로소 하로밤만지나면 완전하게 실시하게되엿다 이하로밤을 장벽삼고 부로편입될 삼군(三郡)일읍(邑)칠십륙개리(七十六個里)의인구이십삼만구천여명은 다가리 시집가는시악씨의 서운해하는마음과가티 정겨운녯동리의 정룡처바리는석별의 늣김을 떠우고잇다

이날부터 력사길든동명(洞名)은 영원히사라저버리고 생소한정(町)이등장하는날이다 허무러진성벽넘어 산비탈강언덕에매여달린 초가집들의 향토적정조가흐르는 몬지안즌문패들도 이날로부터 갈리게될터이다 경성부로 시집가는 군면읍(郡面邑)사무소앞에는 오늘에날근장부들이 오래간만에 해빗을 쪼이며 가각분할된 경성부출장소를 차저 구루마에실려가고잇다 폭포에과 사월일일은 또한칠십만대경성이 실현되는날이라하야 경성부에서는 사실혼가이새색씨를 맛는결혼식날과가리 원장안에 인끼를 비등케하고저학교생도들의 기행렬을 식히다는데 서산에기우러지는 저녁햇살과가티 오늘이경각에잇든 리집지동의 주민들은 어하로빨리 구히 귀령하고저 각각그동리회관에 모히여 석별회를 도한새로된 부민의 행세할모든 준비회의 모등도 떠려잇다고한다

### 普校開學

래사월일일은 시내 각공립보통학교에서개학하는 날이다 지난이십사일의 고사로 입학된 어린이들은 이날 오전여덟시 만여섯살에서 학교에가게되는 아동들은 이날부터 등교시간은 오전아홉시인데 첫날은 학부형이 가티 동반하여 학교의주의를 들어야할터이라한다

### 天氣豫報

京城地方今夕은 개이고조금흐리다 京畿全道도가다
昨日最高 一〇度六
最低 零下一度一
今朝最低 零下一度
今日正午 七度三

# 初等敎員層에大地震
# 二千五百名異動
## 四月一日부터實施

사월일일의 새학기를 압두고삼한 교원의도태에의한 신진의입월하순수일동안에 전조선초등교명 금년봄의 사범학교출신의입명 학교와학교증설등에의한 증원관계로 각도에서는 평균이백명내외의 대이동을 단행하게되것이라한다

그리고 이동에잇서서는 이미학무국에서 지시하여둔바와가티 모든파벌관계의타파 로후교원의용퇴 도회지와농촌학교의 차별에의한소위 영전과좌천의폐풍을 일신한것등여러가지 조건에따라서 각도학무과에서 전형한것으로 이동범위가 널부니만치 초등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도적지안흘것으로 주목된다

또 중등학교의 교원도 금년에 신의주(新義州)여자고보를비롯하야 함흥(咸興)경성 마산(馬山)의세중학 전주(全州)의 사범학교등의 신설에따라 다수이동이 수일내로 발령될터이라한다

# 瀆職府吏等廿名
## 三年役以下各各言渡
### 그중에 열한명은 집행유예로
### 京城地方法院에서

경성부리원과 철물상 인쇄영업자들이 결탁하야 경성부소용 물품을 부정매매하야 리익을본 하먹은 길전일부(吉田一夫)등이십명에대한 사기피고사건은 삼십일일 오후에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재판장으로부터 징역삼년내지 징역륙개월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그가운데서 열한명은 집행유예로되엿다

▲元京城府物品係主任 吉田 一夫(四二)
懲役三年 追徵金三千七百九十七圓二十九錢
▲雜貨商 宮本 末彦(三二)
懲役一年六月
▲金物商 西松 育次(四〇)
▲材木商 中野 多助(四〇)
各懲役一年
▲金物商 原田熊三郞(四三)
▲雜貨商 綱島 茂市(三四)
各懲役十月
▲印刷業 江里口義一(三九)
元京城府掃除監督 鐮田隆三郞(三〇)(但鐮田은 追徵金六百六十錢)五圓六十四
▲元京城府購買係 志賀隆雄(四〇)
(但追徵金六百九十圓五十錢)
▲元京城府會計係 大野 一幸(三三)
(追徵金三百五十七圓十六錢)
以上各懲役八個月
▲古物商 中田 淸一(三三)
▲雜貨商 齋木 恒夫(三七)
▲金物商 井內種太郞(四〇)
▲同 片山 德一(四〇)
▲印刷業 大塚 榮(三八)
▲元京城府用度係 藤城 慶(三三)
▲米穀商 田中 和市(三九)
以上各懲役六個月
▲古物商 三村幸四郞(三二)
懲役五月
▲古物商 林 玉吉(三六)
▲同 小管作次郞(三五)
各懲役四個月
(但 吉田은 一百日未決通算 鐮田、志賀、大野各百五十日未決通算 宮本、西松、原田、江里口、齋木、中野、井內、片山、大塚各未決通算百日 三村、中田、林、小管各九十日未決通算)
▲三年間執行猶豫=三村、中田、林、齋木、綱島、井內、片山、大塚、藤城、田中、小管

# 艶聞百出·雜音을淸算
# 急템포結婚行進曲
## 사랑의凱歌를놉히부른히로인은누구?
## 十五年前의戀人金聖哲孃
### 提琴家桂貞植氏

조선악단의총아 바요리니스트 계정식(桂貞植)씨가 작년봄 독일류학 십이년만에 쪽풍과가튼 인끼를 한몸에 모으고 조선에 돌아오자 그가 아직 독신자이엇다는점에서 세상의 소문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의 가진예술을 말하기보다도 그를 중심한 녀자의 소문을말하기 즐겨하는것이다 돈만바래고 부호의 딸과 약혼을햇느니 독일서 사랑하든녀자가 딸아왓느니 독일녀자때문에 파혼을하느니하야 소문은둥하다 녀자에관한 소문이란 흔히인신의주상이 어……

……더니 그후 잠잠히잇든씨는 이젓든 녯날 십사오년전의 사랑을 차저 사월일일 씨가새로취직한 리화전문학교 음악과의 개학을 압두고 결혼식을 하게되엇다 순직한 예술가의 붉은 동심(童心)에서 다시 출발하여 정열에 타는 사랑의 개가를올려 씨의 결혼문제를궁금스럽게 생각하고 잇든 씨의팬들에게 「뉴-쓰」를 전하고잇다

……◇……

그러면 씨를 둘러쌋든잡답한소문을 지범고 사랑의 금판엉을 마친히로인은 누구일까? 그는방금 전남광주(光州)수피아녀학교(須彼亞女學校)교원으로 잇든 내랑고등사범학교(奈良高等師範學校)……

동경로 사랑의승리를 엇게되엿든가? 그내력은 이러하다 누구나 아다시피 게씨의혼인에 관한 소문은 놉핫다 나이 삼십이지나도록 외국에 십수년잇스면서 갓가운 녀자인들 업섯스랴하는추측도 가능한 것이 잇거니와 한때는 독일서 그곳녀자와결혼한다는소문도 업지안헛다 그러나 늙은어머님에게충실한그는 어머님의 반대라하여 그곳녀자와의 결혼은단념하고역시아땅을떠나는 그때의독신을그대로 직히고돌아왓다 그가조선땅을밟게되자 가진조건을가추어 구혼하는곳이 한두곳이아니엇다 그런는중에 그의가정에서……

월하수인가 오월초순 귀국한지 불과 몃달이엇든데 그약혼이성립되지 얼마안되여 독일서부터 수만리길을 불고하고 단신으로 그를차저온 젊은녀자가 잇섯다 과연 그녀자는누구일까 독일서 예까지 따라올때야 관계가 각별한터이 아니엇겟는가…이러한 억측은 가능한것이엇다

……◇……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든 것가튼 소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엇다 갓갑기는 무척갓가웟든 모양이다 그러기에 그가귀국하여 독주회를 하려해도 적당한 반주자가 업서서 곤난하다는……

든것이니 조선에내리자 성북동(城北洞)계정식씨집에서 숙식까지 가티하게되매 세상에 소문은 한층더 수선스러워지며 한편에는 귀국후 졸연히 길혼리해를 엇기도전에 인연을 맷게든녀자가 더욱 말성이엇다 독일녀자는 누구이냐 어째서 숙식까지 가티하느냐…고。마츰내는 계정식씨와 쿨러양의 사이를의심한다는말을 약혼햇다는녀자 자신의 입으로 말햇다는것이 어떤 잡지에까지 뚜렷이발표되며 세상의 소문은 야릇한 이야기 꺼리로 되엿든 것이다 그때 계정식씨는 동경연주회를 위하여 쿨러양과가티 동경에가 잇든때이다 계정식도 미처 그런줄몰으고 잇섯거니와 더구나 쿨러양은 아무것도 몰으고 낫설은땅에와서잇는 일언반구도 업시 반갑지안흔 소문으로 사람의입에 오르내린것은 참말미안적은 일이엇다

……◇……

그후 계정식씨에게도 어떤결심이생기지 안흘수가 업섯다 약혼하고 그약혼이원만치 못한 것은 순전히 두사이에 길혼리해……업섯든때문이라는것을……

된 김성철양을차저갓다 그러고는『지금도 혼자잇거던 나와결혼합시다』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구혼을햇다 김성철양도 넘어나 돌연함에놀랏다 그러나 두사이에는 말못할수잇슬만큼 여유이엇다……두사이는……식씨로서는 언제까지나 기다리라고 할수업섯다 또그런것을 언제나생각하고는 공부도……

든때 평양서압뒷집에서 알고지나든 동무로 자라면서 미래를 약속하고는 사랑하여오든터이엇다 그러나 그후 서로헤여지며 외국에나가서 오래잇게된 계정식씨는 귀국후에도 평범하게한번 만나보앗슬뿐 그런빗도업시 지낫든것이이번에돌연히 사랑의부활을 보게이니 그동안 약혼문제로 씨끄러운소문에 머리를 앓코난 그로서는 역시결혼은 사랑의열매라는결론을 다시금 늑겻든모양이다

……◇……

계정식씨는 결혼의 깃붐을말한다 내가독일서 도라와서는 결혼은 생각도안햇든것인데 그때만일 약혼을하엿다면 지금말하는 김성철씨를 만나지못하엿든덜 그동안의 씨끄러운소문도 업섯슬것입니다 그동안고것도 업습니다 두사이는 역시 밋는네동무이니까……그러고 결혼식은아주 간단하고 검소하게 친한친고몃분과 가치 지내려고하고 호화로운것은꿈에도 생각지안습니다 고 자신에 넘치는 우슴을짓는다 녯사랑을 다시매즌 김성철씨도 돌연히 결혼을 하자기에 모든것을그이에게맛길뿐입니다 고하며 역시 깃붐을감추지못하는 우슴을짓는다 이리하여 우리 바요리니스트의봄에는 새복이차저온것이다。

## 運動競技

### 高麗卓球聯盟 代議員會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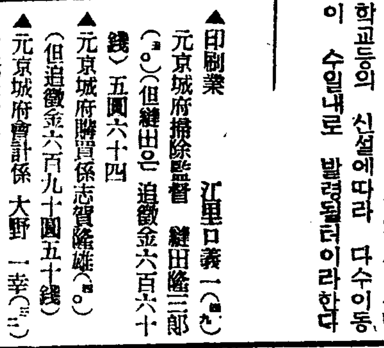
高麗卓球聯盟第一回代議員會議는 四月三日午後七時부터 朝鮮中央基靑社交室에서 열리인데 各地代議員은 無漏參席하야주기를 바란다하며 當日決議事項은 副會長及監事選擧와 理事改選、加盟承認(團體及個人)및 今年度事業을協議決定할터이라한다

### 朝鮮中央基靑 體育部員募集

事項은 同部體育部에問議하야주기를바란다고한다
▲籠球部=每日下午三時부터十時까지三回
▲器械體操=(鐵棒、平行棒、吊環、鞍馬、橫棒、登攀等)每週火、木下午五時
▲丁抹體操部=每週火、木下午四時…五時…六時
▲拳鬪部=每週月、水、金、下午七時半…九時半 每週火、木、土下午四時…五時
▲柔道部=每夜七時半…九時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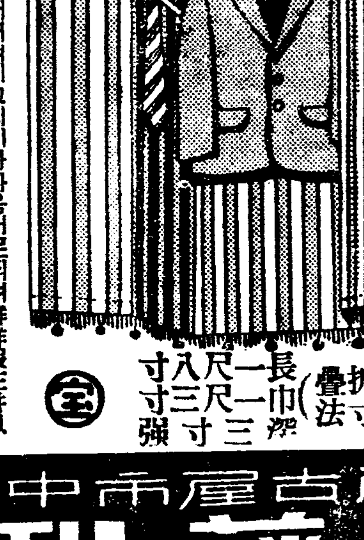
### 愛知4 吳港1

【甲子園】全國選拔野球第三日…愛知商業對吳港中學戰은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 開始되엇는바 結局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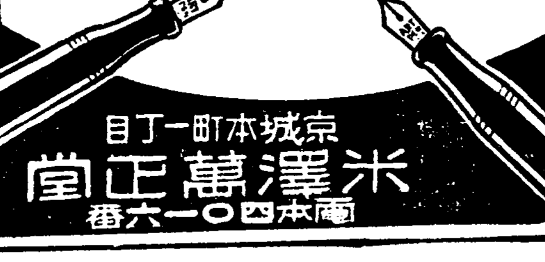

新案特許 長谷部式製麵機
特別割引
ライト發動機鮮滿發賣元

製麵機中의覇王
發賣開始
中島式製粉機朝鮮發賣元

ライト輕油發動機
二馬力부터 十二馬力까지
型錄請求에二錢切手要함
カタログ送呈
特約店募集
朝鮮販賣元 京城府元町一丁目百十七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番·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東洋自動車學校生徒募集
◎入學隨意。免許證獲得。責任敎授。就職紹介
(元京畿道自動車運轉手試驗官)校長 溝見良
京城府武橋町三三一·電本(2)五四〇二·振京一〇六九九

輕便洋服收納器
一個九十入函入折疊式 長三尺八寸
輕便洋服收納器(服掛三個付)
一個代金一圓九十錢(一個小包送料九十三錢 二個小包送料一圓〇五錢)

本品은四方에카텐을처서몬지가안드고 洋服三件以上걸수잇고 와이샤쓰네타이等을걸수가잇습니다 取扱키輕便하고 只今大流行의理想品 몬지안뭇고늘깨끗한옷을입을수가잇습니다
折疊法 長一尺一寸三 巾一尺三寸 八寸強
柱掛洋服收納器(服掛一個付)
一個代金一圓八十錢

小包送料 一個六十七錢 二個九十三錢 三個九十九錢 四個一圓〇五錢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アート高級萬年筆
大景品付特賣
安心하고쓸수잇는 アート高級萬年筆
買上額二圓마다左記광장한抽籤券一枚式進呈합니다
賣出期限 自三月十日 至四月十五日
一等 スイツル製十五寶石入 腕卷時計
二等 十八金側十型 スイツル製十五寶石入 腕卷時計
三等 クローム側十型 皮製 年筆
四等 總 札入財布·差シース
五等 萬 ハンカチーフ·アルバム·手帖 御買上者에無漏進呈
四大特典 巡廻サービス 修繕無料 取替自由 ネーム入無料

京城本町一丁目
米澤萬正堂
電本四〇一六番

本蔘의特長
絕對神効 成分優良 色彩佳麗 品質卓越

自古名産
機張土種人蔘
東萊郡日光面伊川里 耕作地 玉蒲人蔘圃 主 甲
釜山府幸町三ノ一番地 販賣部 玉蒲乾材藥局
電話二六〇四番 振替釜山六〇二番
時價表請求次第進呈

呼吸器를튼튼케하고虫齒를豫防하는

# 衛生 ほがらか齒磨

## 呼吸器와 齒가弱한人은短命

加藤醫學博士製造顧問
小島醫學博士推奬
甕醫學博士推奬
藤井醫學博士推奬

### 입으로侵入하는무서운傳染病

空氣傳染에依하야 口中으로 侵入하는 病은 許多하나 其中에도 結核과 流行性感冒等의 傳染病이 가장 重要한것으로, 結核患者갓흔 것은 內務省發表에依하면 一個年百萬人을超過한다고 합니다, 流行性感氣等도, 年年冬期에는 非常한猖獗을 呈하는것은 이미 世上이 周知하는바이어니와, 此等의 危險스러운 傳染病『即口中으로,侵入하는諸病』을 豫防하고 虫齒를防禦하고 齒牙를 희게튼튼히하는것이 本齒磨의 偉大한 特色이오니 이것을 朝夕의 齒磨에 一日數回에含嗽에, 吸入에 常用하면 呼吸器를 튼튼히하고 齒牙를美麗하게 强健케하야 참된健康을엇게됩니다 朝鮮三千萬同胞諸氏는 今日부터 此衛生ほがらか、齒磨를 愛用하사眞摯한 健康美를獲得하시도록 切望하는바입니다

### 衛生ほがらか齒磨의特色

衛生ほがらか齒磨는 最新의 學理를 應用하야 創製한日本初有의 總括的口腔衛生의齒磨로, 實로左의偉大한特色을가지고잇읍니다

一、齒磨外에含嗽藥도되고
二、吸入藥에도使用되고
三、虫齒를豫防하고
四、齒牙를 희고튼튼하고 美麗하게하고
五、琺瑯質를害치지안코
六、口臭를除하고口中及心身을爽快케하고
七、口中으로侵入하는諸病 即 (イ)流行性感冒、(ロ)結核 (ハ)口腔諸病 (ニ)咽喉諸病

等을놀낼만큼豫防하고 世界에자랑할最新齒磨입니다。

吸煙家나、愛酒家께나、어린이의게나、老人의게나、婦人께나 꼭口味에맛는衛生齒磨

### 小島醫學博士는 如斯히推奬합니다

今般創製發賣된衛生齒磨「ほがらか」의 處方을披見함에 原料及製法에는 從來의 齒磨와는 大差가잇어 口中에서 殺菌을하는 効力이 著明할뿐아니라 含嗽吸入에 使用할수잇음은頗히進步된것이라고 思料되는同時에 이것을常用하면 口腔及 咽喉諸病流行感冒 結核肺炎等을 豫防하는것으로 認定하고 玆에가장進步된 革命的新齒磨로써 江湖諸賢에게推薦합니다

醫學博士 小島憲瑞

### 甕醫學博士는 如斯히推奬하고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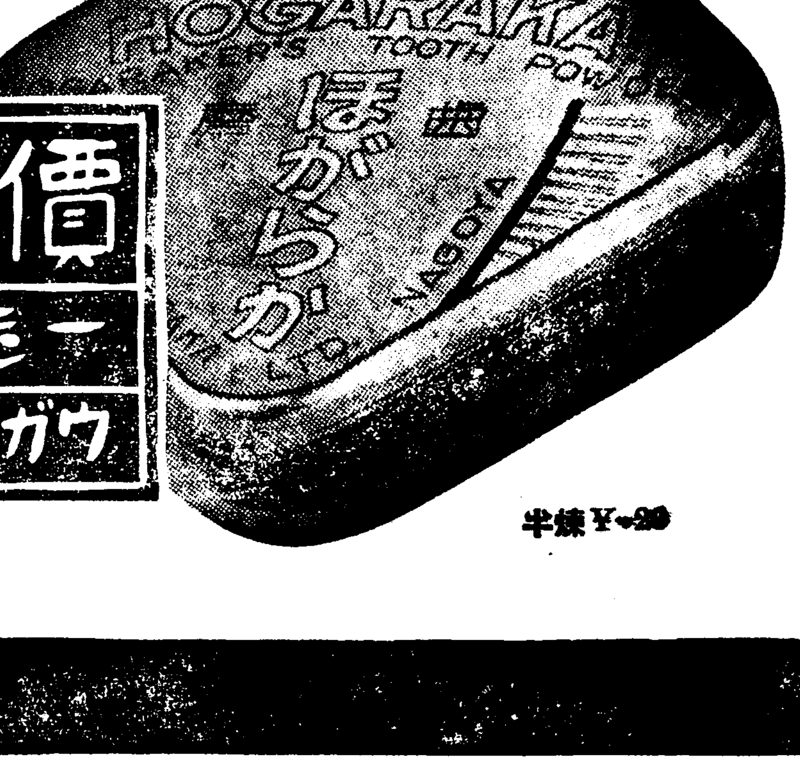
中野合名會社가 多年研究創製한齒磨「ほがらか」는 在來品과는 組成을달니하야 各種의 强力殺菌劑를 多量含有하므로써 其殺菌力이가장顯著하야 日常이것을使用하면 齒牙、口腔諸疾病을 豫防할뿐아니라、此等 各部를 侵入門戶로한 咽喉部及 諸種傳染性疾患도 豫防할수잇슴으로 이常用을 널니世上에 推薦하는바입니다

醫學博士 甕 哲夫

## 朝鮮三千萬同胞의今日부터 使用하실齒磨는이것!

## 三月中旬부터全鮮一齊히發賣

地方特約店希望하는분은橋本代理店에申込하야주시요




價格低廉
一缶の使用量五十日
ウガヒ藥としても一瓶僅か三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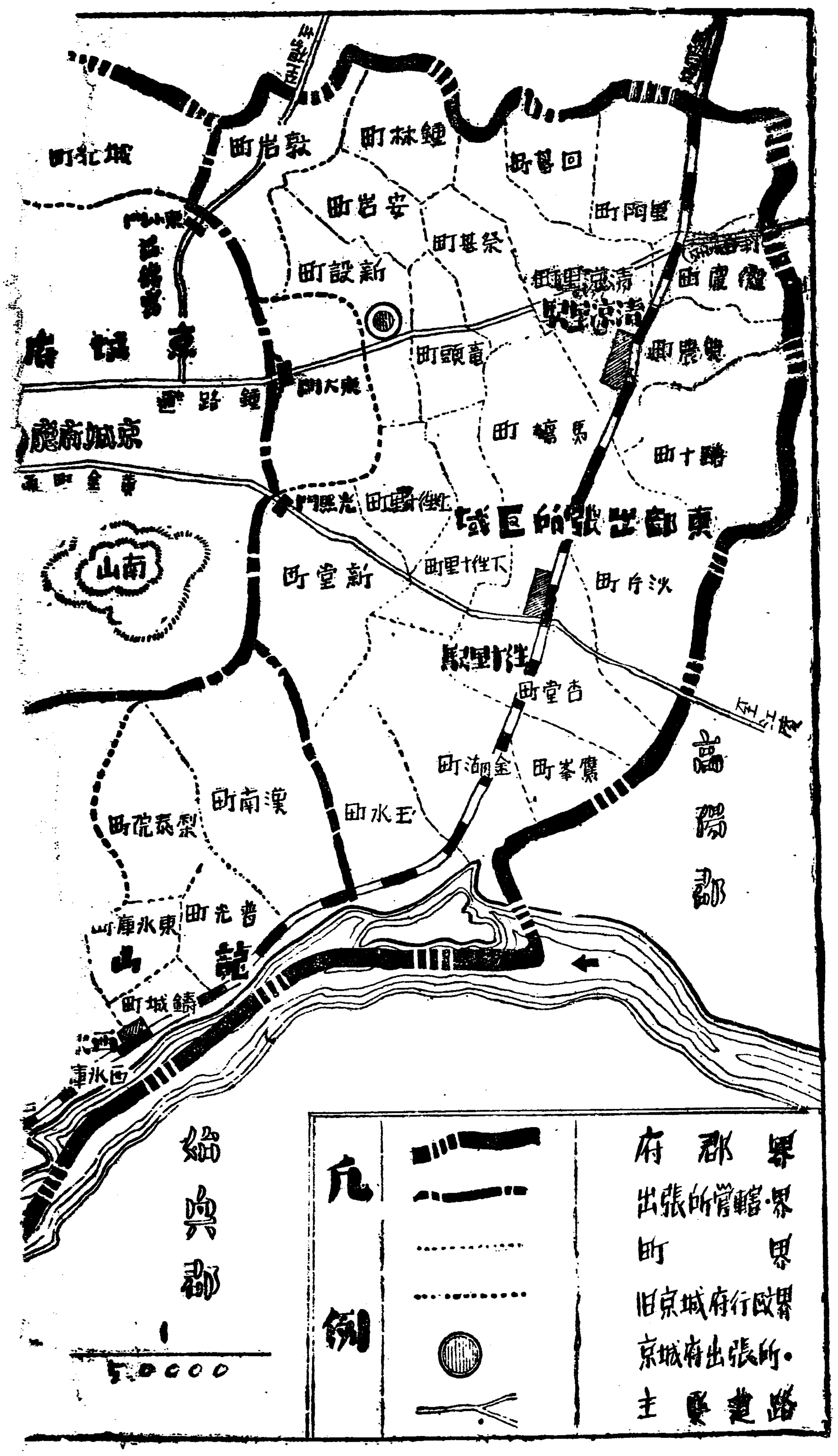
半棟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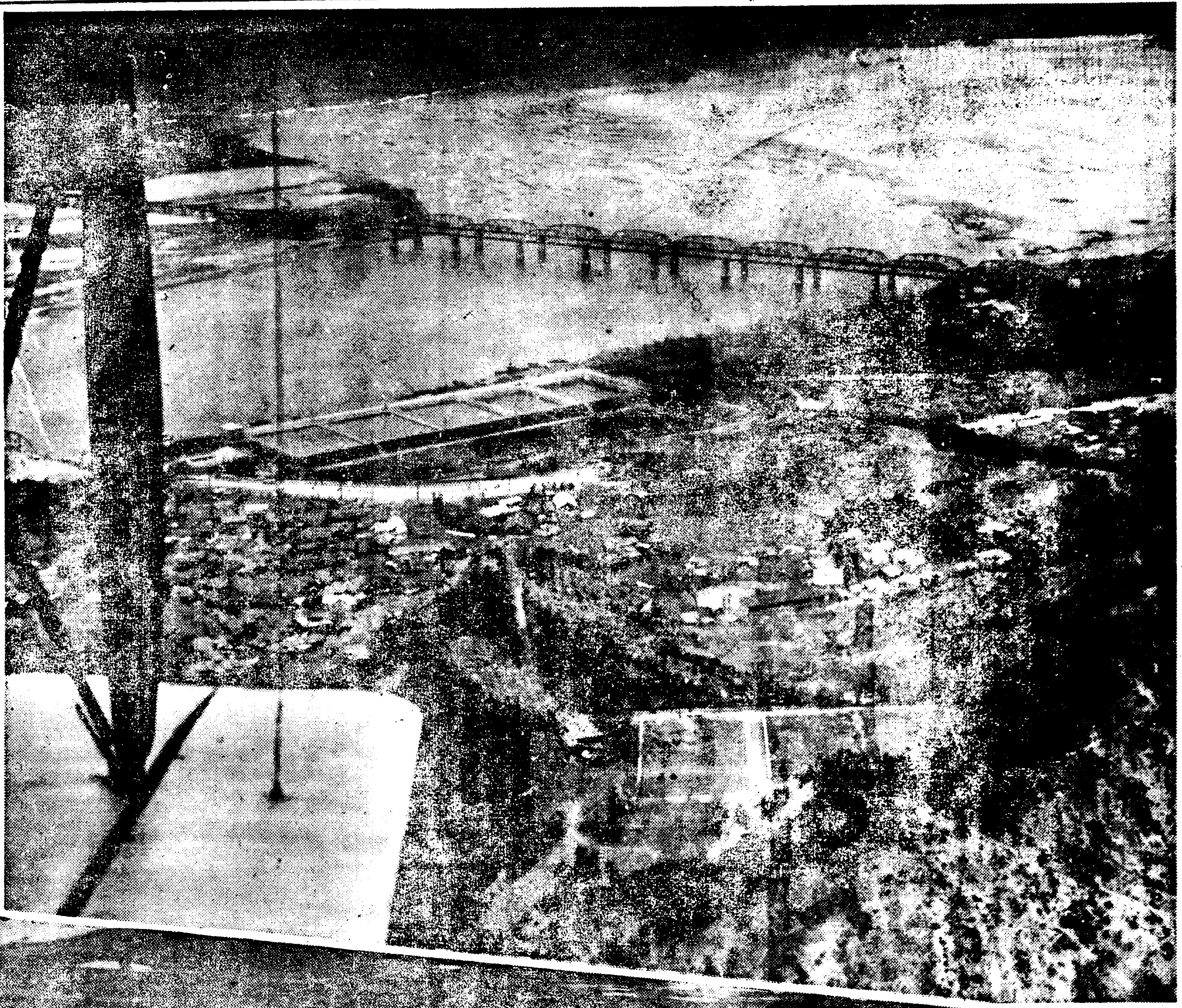
朝鮮發賣元·橋本良美堂本舖
釜山府土城町 電話九七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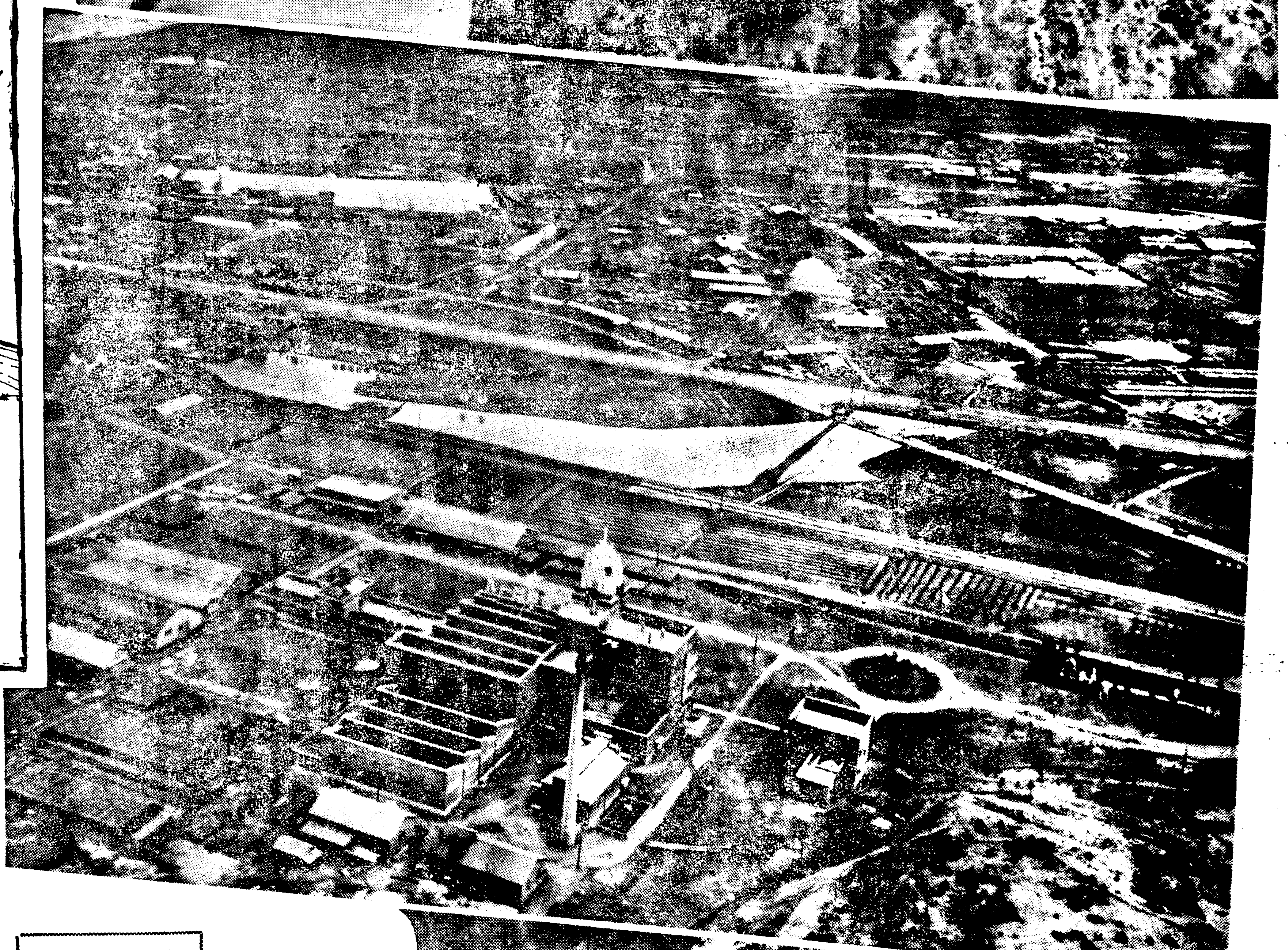
本舖·名古屋·中野合名會社

# 今日로誕生

本社機上에서操縱





## 地域은四倍로 人口六十八萬

### 躍進하는朝鮮의首都

사월일일부터 행정구역이 확장되는 대경성의 면적은 종래의사배인 사천일백사만여평(坪)으로 되고 인구는 작년말현재호구조사에의하면 종래보다 이십삼만륙천팔백오십사인이 늘어서 륙십삼만륙천팔백오십사인이고 작년십월 국세조사에의하면 합계륙십팔만사천팔십오인에 달하는 대도시가되다

**面積**

| | 總面積 | 住居可能地 |
|---|---|---|
| 在來京城府 | 一〇、九一八、六二一坪 | 七、五三〇、八二一坪 |
| 新編入區域 | 三〇、一二三、七三五 | 二〇、四七七、九五二 |
| 合計 | 四一、〇四一、三五六 | 二八、〇〇八、七七五 |

**▲人口 其一** (戶口調査에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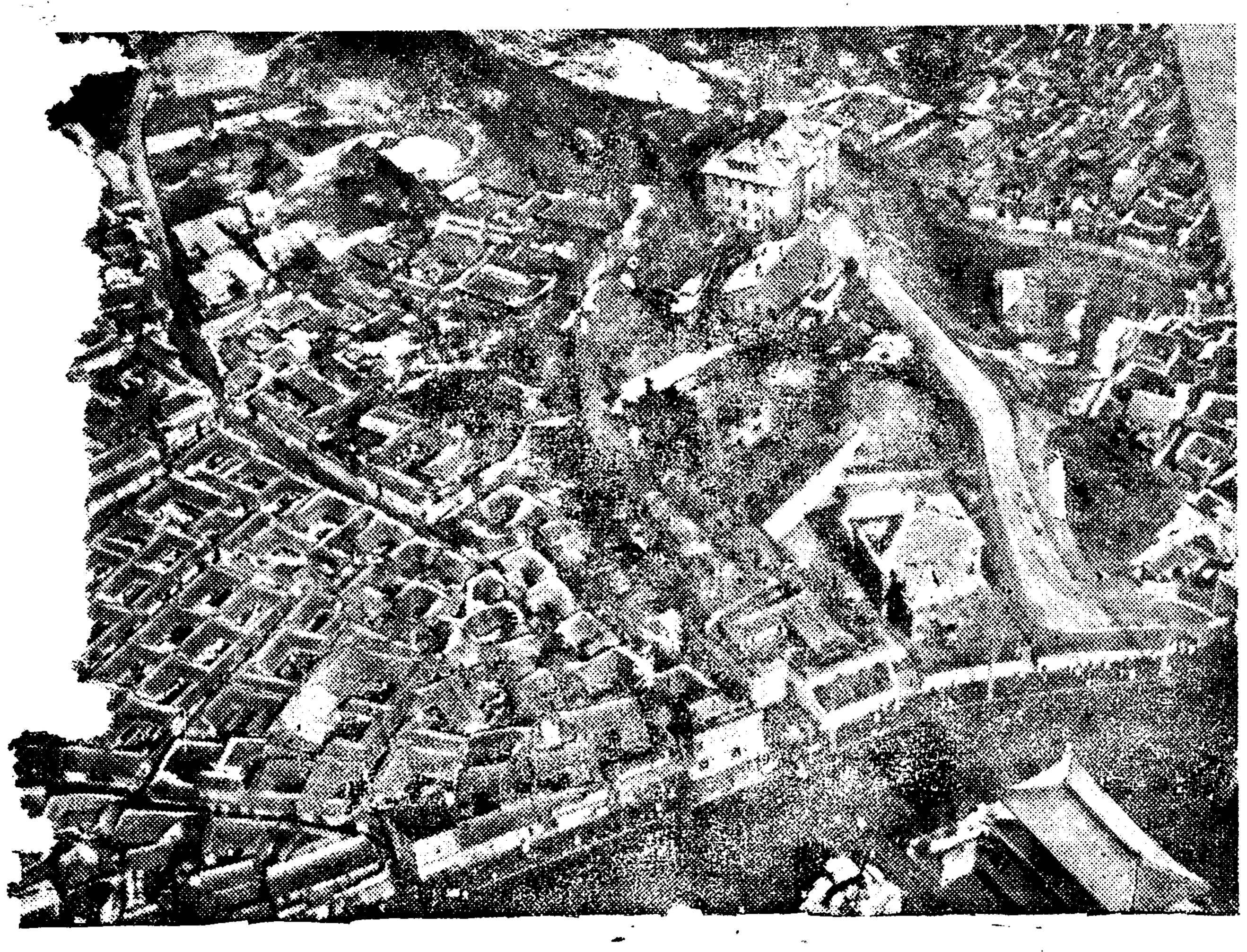
| | 在來京城府 戶 | 在來京城府 人 | 新編入區 戶 | 新編入區 人 | 合計 戶 | 合計 人 |
|---|---|---|---|---|---|---|
| 日本內地人 | 三五、六八一 | 一三五、三三一 | 一、八六八 | 七、六八八 | [illegible] | 一四三、〇一九 |
| 朝鮮人 | 五五、八四二 | 二八四、六三三 | 四六、一四三 | 二三七、八〇一 | [illegible] | 五二二、四三四 |
| 外國人 | 一、〇〇〇 | 六、三三八 | 二〇八 | 七七三 | 一、二〇八 | 七、一一一 |
| 合計 | 九二、四二三 | 四二五、三〇二 | 四八、四一七 | 二四六、二六二 | [illegible] | 六七一、五六四 |

**▲人口其二** (國勢調査에依함)

| | 世帶 | 男 人 | 女 人 | 計 人 |
|---|---|---|---|---|
| 在來京城府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新編入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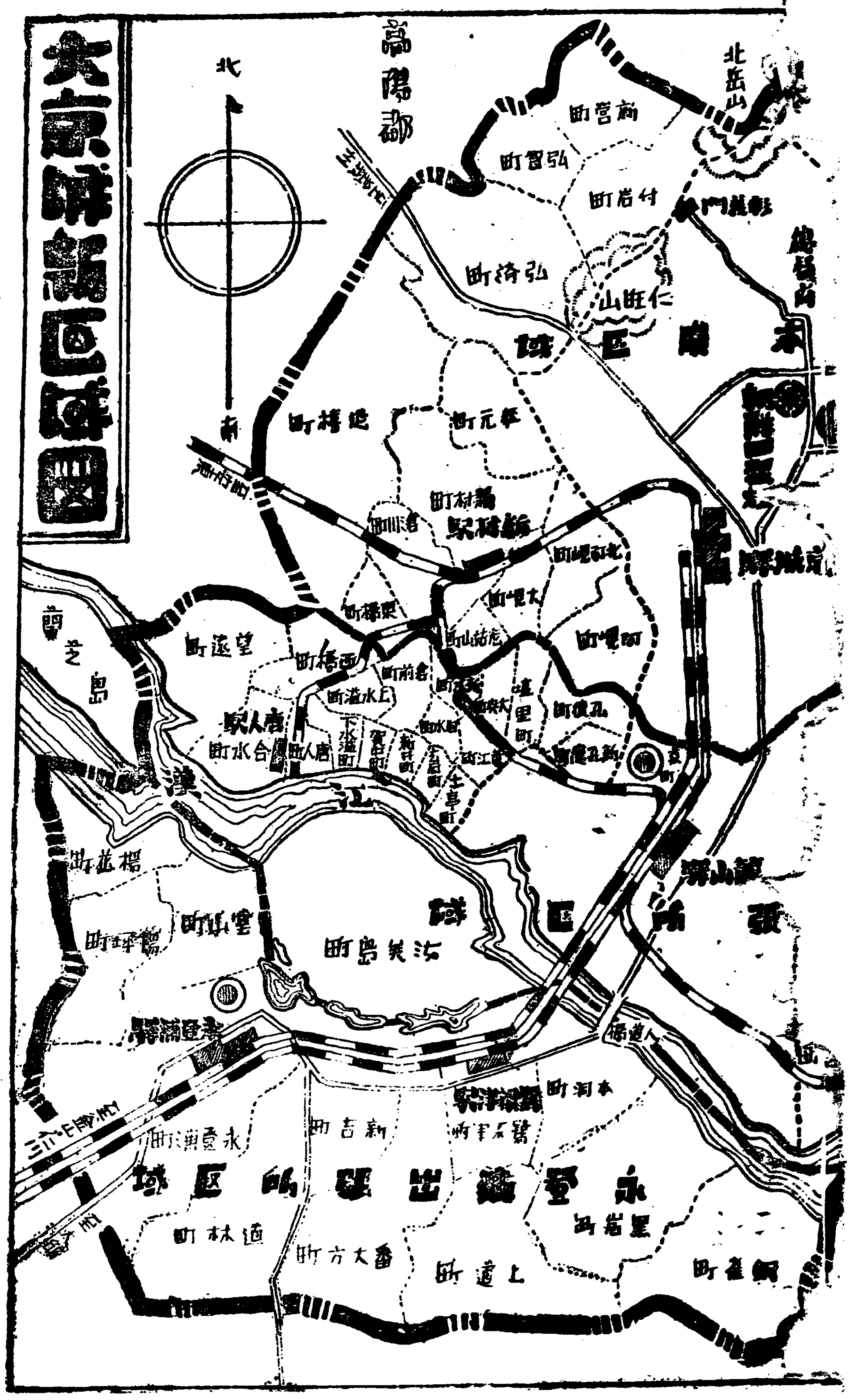
**사진설명**

우편상으로부터 로량진한강철교방면 영등포시가지일대 창의문(彰義門)박 일대、동대문안과 박글 걸처본 일대



# 七十萬大京城

…項・撮影 李鍾玉



## 本廳과三出張所 事務取扱區域町名

이번행정구역확장의결과 태평통(太平通)에잇는 종래의 부청과 룡산(龍山) 출장소만으로는 사무가 복잡하여 감당키 어려움으로 이번에 영등포(永登浦)와 동부(東部)에새로 출장소를 두게되엿는데 본청과 출장소의 사무취급구역은 다음과갓다 그리고 시내동리는 이백오십구개정으로 구분되여잇다

### 本廳

(京城府太平通一丁五四、五九番地三十一番地ノ一)

阿峴町 大峴町 老姑山町 滄川町 東橋町 延禧町 新村町 峯元町 北阿峴町 弘濟町 弘智町 新營町 付岩町 城北町 (其他는 昌信町 崇仁町이 東部로 編入된것外는 從前과갓다) (以上一七七個町)

### 京城府龍山出張所

(京城府 京町二十四 番地ノ三)

三坂通 岡崎町 漢江通 梨泰院町 漢南町 普光町 纛城町 東氷庫 西氷庫町 花芝町 二村町 靑葉町一丁目 靑葉町二丁目 靑葉町三丁目 京町 榮町 元町一丁目 元町二丁目 元町三丁目 元町四丁目 岩根町 山手町 淸水町 彌生町 大島町 桃園町 新孔德町 孔德町 鹽里町 桃花町 麻浦町 土亭町 龍江町 大興町 新水町 舊水町 玄石町 新井町 下中町 倉前町 上水逸町 下水逸町 汝矣島町 唐人町 西橋町 合井町 望遠町 (以上四十七個所)

### 京城府東部出張所

敦岩町 昌信町 崇仁町 新設町 龍頭町 安岩町 鍾岩町 祭基町 淸凉里町 回基町 里門町 徽慶町 典農町 踏十里町 沙斤町 馬場町 杏堂町 鷹峰町 金湖町 下往十里町 上往十里町 新堂町 玉水町 (以上二十三個町)

### 京城府永登浦出張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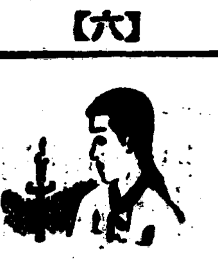
銅雀町 黑石町 本洞町 鷺梁津町 上道町 番大方町 新吉町 道林町 永登浦町 堂山町 楊坪町 鹽花町(以上十二個町)

### 사진설명

좌편상으로부터마포방면、동대문박경마장부근일대、동소문박성북동일대、광화문통에서본종로방면

## 戲曲 春香傳 ([illegible])

【朝鮮研究會上演】 柳致眞 脚色



[求禮縣監] 내가 꿈을 아조 잘꾸엇나보군。오늘내가 어데 께 조흔술과 조흔안주에 취햇스면 그만일러인데、에다가 도 그말성이 자자하다는 춘향이란 소부(少婦)를 구경하다니 참 오늘이야말로 조흔 날이로구려。

玉果 쉬! 객담을 그만하고 얼른 그춘향이란년을 좀 불지 당。

座中 그 조흔말이오 분부 엄르 춘향이지 무어지 하는데 을 끄으러내 오오。

卞學道 운봉이 기어코 고변죽 [illegible]는것을 보여드리고 하엿는데 쉬 운봉이 어데안갓나요? 한잔술 참 운봉이 웬일일까? 운봉이 업스니 파연 저녁이 비는것 갓구만

淳昌府使 여러 안오는 운봉이 새삼스럽게 오겟소?

卞學道 이왕이니 좀 더 기대렷다가 운봉이 오거던 춘향이란년을 죽이게 합시다

淳昌郡守 그것 무방한 말슴이오 우리좀 기다립시다。

(이때 밧게서 喇叭소리、떠따 에지쩌를 에이쩌를 勸馬聲소 ─雲峯이온「어허─」하는소리)

求禮縣監 저 운봉이 아니오?

淳昌府使 춘향이 소리를 하면 운봉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운봉이요 나보군。

(雲峯營將들어온다)

卞學道 운봉웨이제게 나섯소?

雲峯營將 늣저서 참 미안하오 (유리가에)좌중이 아조들 취하섯는걸요。

卞學道 자 어서 안저서 술이나 바드오。지공한 벌주를 톡톡히 해야할것이오。

雲峯營將 술 밧기야 어렵지안소。헌데 좌중에 좋음 말이 잇소。(坐中 좀 지정하야 진다)혹 이런 소문 드릿소?

坐中 무슨소문이오?

雲峯營將 (소리를 나치서)다른게 아니라 우리 호남에 암행어사가 출두되엿다는구려。

坐中 (一同와─ 웃어)허허허…… 운봉이어듸서 도 그런 소문을 못드럿소?

雲峯營將 아아니 우리것이 아니라──

坐中 허허허……그만두오 운봉 판조이 너무 무사함을치면 혹 그런 허설이 돌지요。

淳昌府使 운봉、또까가 제발구에 뒹집단 말 모르오? 운봉 오입은 허설을 공연히 꾸며내는구려。변전에 나도 그런수가 잇섯는데、지내가는 거지를 암행어사인줄 알고 똥헌데다가 그거지를 끄으러드려노코는……허허허……하제 손으로 톡톡히도 망신을한 적이잇섯다오。

雲峯營將 그래도 이번소문은 미듬만한 자리에서 들은소문이오。그리고 급방 삼문압해서 만해도 백성들이 모혀서 이구석 저구석에서 두런두런하고──

求禮縣監 그러타면 큰일낫는걸 나는 제애비를 죽인놈을 뇌물을밧고 용서해 두엇는데、그것이──(玉果와서로칭술)

玉果 나는 상납미(上納米)를 잘 려먹고──

卞學道 아니 저정을 마오 상문마게 모히것은 춘향이 죽는것을 구경하려고 모히것이오。

淳昌郡守 그거참 그렷소。내가 올때에도 구경군이 마히지오

淳昌府使 술이나 먹읍시다。

卞學道 자、풍악소리가 웨이러케 죽어가느냐?(風樂소리가 놉하진다。坐席은 다시酒宴으로 는다。)

淳昌郡守 본편 운봉으런 어찌 다는 춘향이란것은 어찌 되엇소?

坐中 참 웨이러케 어둡거리오

卞學道 좋인 거기잇느냐?

通引 예─이

卞學道 춘향 죽일 자비를 차려라。

通引 예─이 금창。

通引 예─이 춘향 죽일 자비를 차리랍신다。

使令 예─이、사령。

(使令들 오루루 나온다)

使令 예─이。

卞學道 쎄나가서 춘향 죽일차비를 얼른차려라。

(使令들 다시退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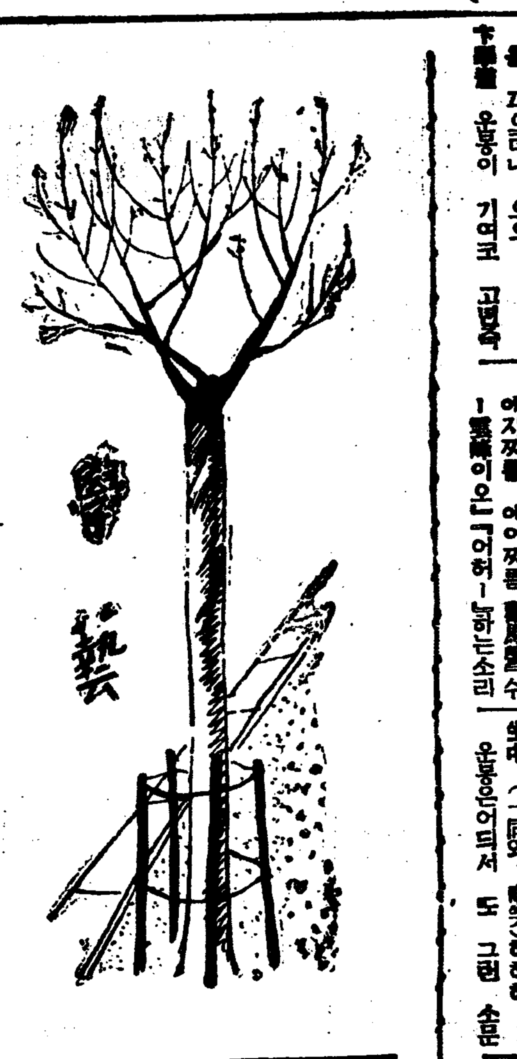
卞學道 (坐中을보고) 조곰만기다리시오。인제그년을 구경시켜 드리리다。

(이때 李夢龍은 乞人행색으로 [illegible]) 가래연(大宴)맛깃스니 술을 잔이나 어더먹고 가사이다。

卞學道 알외여라 사령아 엿주어라 좋인이야。[illegible]

## 間島의 史的考證

在來로부터 朝鮮과 因緣깁다 (三) 韓忠燁



女眞의 建國 그後에 完顔部는 入朝貢納을 履行하더니 酋長烏雅東의弟 阿骨打가代立하야 遼國의 失政을타서 皇帝로 卽位하고 國號를 金이라稱하고 十年에 遼를 征伐하다가 마참내 遼를 滅하니 全滿洲와 咸興洪原間에잇는 咸關嶺以北이모다그 版圖에 드러가고 北中國의 太半도그의 領土로되엿다

要컨대 金의 建國은 渤海國의 復興으로볼수잇고 前者에 渤海의 建國은 高句麗의 復興으로볼수 잇는것이다

그後에 金國이 蒙古(後日의 元)의 侵略을 바다 衰弱함을 타서 金의 反將 浦鮮萬奴가 今間島를 中心하야 東眞國을 세우니 咸關嶺以北이 亦是 그의 領土로 드러가 今間島 局子街는 當時 東眞國의 首都이엿다 其後 高麗高宗 二十一年(距今 七百二年前)에 蒙古가 金國及東眞國을 討滅한後엔 咸關嶺以北이 모다 蒙古의 領土로 드러가는데 [illegible] 定州人 卓靑等이 謀叛하야 高麗官吏를 殺하고 和州以北의 地로써 蒙古에 內附하니 今永興以北이 蒙古의 領土로 化하야바렷다

그後에 蒙古가 中原에서 失勢하야 漢族의 明國에게 被逐되는 때에 이르러 高麗는 北方失地恢復에 全力을 注하야 恭愍王 七年(距今 五百七十九年前)에 柳仁雨를 遣하야 和州以北의 失地를 回復하고 一步進하야 三撤(北靑)에까지 進出하니 此事變에 李子春(李太祖의 父)니 後日의 桓祖大王)의 內應한 功績이 多大하엿던것은 닛지 못할 事實이엿다

이때로부터 高麗末年까지 四十餘年間은 王室의 權威는 비록 衰하얏스나 北方開拓만은 着着成功하야 今咸鏡北道中 豆滿江邊에 在한 六鎭을 除하고는 全部가 手中으로 드러왓스니 此는 李太祖의 武名이 女眞及近隣 各國에 振動한것이 가장 有力한 原動力이 되엿다

此時를 當하야 豆滿江邊 大部의 地와 今間島及其東北地方은 蒙古 明 高麗의 王化가 未及하야 女眞의 各部落이 [illegible] 部族이 [illegible] 狀態로서 自由行動을 敢行하니 先時 渤海가 亡한後의 生女眞의 狀態와 全然同一하얏다

이와가티 오다가 李朝世宗時에 豆滿江南에 會寧 鍾城 慶興 慶源 穩城 富寧의 六鎭을 設置한後에는 女眞族의 勢力은 今間島와 其東北에 局限되고 其中에도 斡朶里部族中 一部分은 今奉天省 興京地方으로 移住하야버렷다 此後에 女眞族의 李朝에對한 態度가 漸漸 溫順하야지니 李朝에서는 女眞을 野人이라고 稱하게 되엿다。

그後에 興京에서 女眞族이 勃興하야 淸朝를 建設한後에도 淸朝는 自族을 南滿에 集中하야 支那本部經營에만 致力하고 一方 李朝에서도 北方經營을 中斷하고 內爭에만 注力하야 現間島及그東北地方은 兩國이 모다 不顧하게 되니 自然的으로 數百年間空曠地로化하야 極少數의 女眞人과 朝鮮人이 殘存할뿐이엿다 그럴뿐아니라 淸朝에서는 高等政策으로 滿洲族이 支那本部로 移住하는데는 何等制限이 업시 極히 自由를 許하얏스나 漢族은 滿洲長城以東에 移住함을 絶對嚴禁하니 此地域을 封禁地라 하얏다 이와가티 白頭山以北은 長久히 空曠하야오는데 距今二百二十五年前 李朝肅宗三十八年에 兩國이 勘界使로 淸國 烏喇摠管 穆克登과 우리 通官 金慶門이 邊界를 調査하야 白頭山頂 十里許의 鴨綠江 土門江分水嶺上에 定界碑를 세우니 그碑文이 左와如하다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至此審視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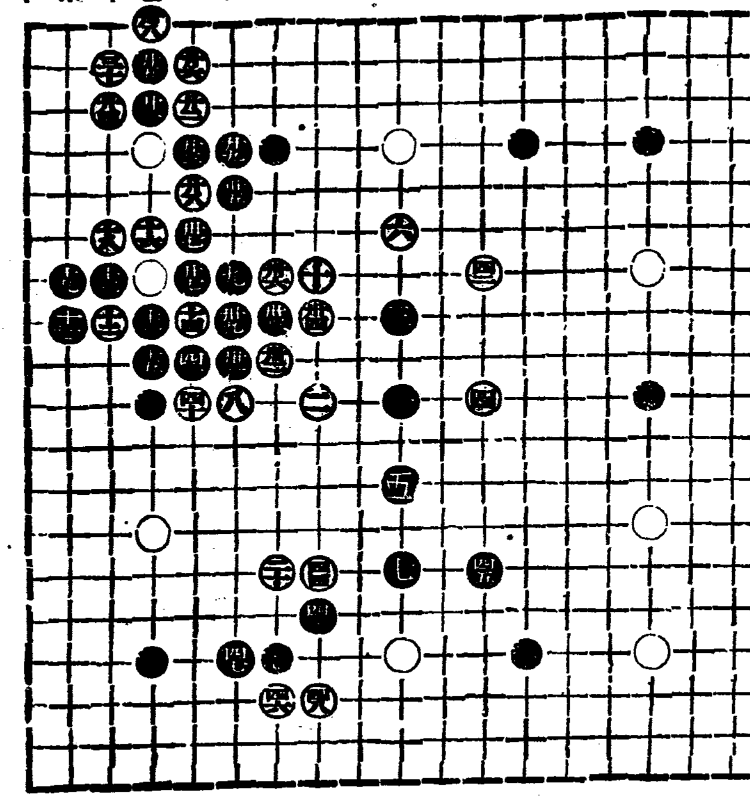
筆帖式 蘇爾昌 通官 二哥

朝鮮軍官 李義復、趙台相 差使官 許樑 朴道常 通官 金應瀗 金慶門

##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3=

白 蔡極文 黑先 柳鎭河

| | |
|---|---|
| ● 三十三 | 寅의八 |
| ○ 三十四 | 丑의八 |
| ● 三十五 | 卯의五 |
| ○ 三十六 | 寅의七 |
| ● 三十七 | 辰의六 |
| ○ 三十八 | 巳의一 |
| ● 三十九 | 卯의八 |
| ○ 四十 | 辰의十 |
| ● 四十一 | 辰의九 |
| ○ 四十二 | 辛의七 |
| ● 四十三 | 丑의十五 |
| ○ 四十四 | 丑의十四 |
| ● 四十五 | 辛의十四 |
| ○ 四十六 | 寅의十七 |
| ● 四十七 | 卯의十六 |
| ○ 四十八 | 丑의十七 |



◆對局者談

白이 寅의七로 봄을 [illegible]한은 後會인듯하나 黑이 辰의六으로 [illegible] 은白이 不斷하고는 아니됨으로 黑은 順序로 連絡되고 白은 辛의 七로移動함이 別無講奇나 時局上으로는 差可할듯 黑이 癸의十六白將包圍次로 丑의十五로 着한후 白이 丑의十四로 應하니 黑은 辛의十四로 連絡함을 [illegible] 此境遇에는 白이寅 [illegible] 活路가 自然發生되는 默認하노라

## 라디오

### 三十一日(火曜)

◇午後六時 라듸오少女小說『先生님도우시엿다』─李瑞求作─ (配役) 선생……金小泉 어머니……朴明淑 일순……金順姬 玉順……尹貞淑 京城어린이放送會 効果 金浩升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指揮 金虎俊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講演『어던方法으로事物을探求할가』 李晶燮

◇同八時 平壤歌外 一、平壤歌 二、博物打鈴 三、磐瓊歌 四、金剛山打鈴 五、開城난봉가 六、楊山道 崔貞植 笑琴 李忠善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검은謎子』 朴應冕

◇同九時 歌詞 一、길軍樂 二、乾坤歌 金蕉紅 金鳳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六時(大)音樂勸議

◇午後七時三〇分(大)講演

◇同八時 地唄

◇同八時三〇分(東)舞踊

### 四月一日(水曜)

◇午後〇時五分 報念外 一、念 二、六字백이 三、개고리打令 四、興打令 李翠香 卞翼紅

◇同三時一五分 通俗家庭講座 金秩普

◇同六時 四月에난偉人의이야기 (八) 辛鳳祚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義人과現世幸福 (二)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講演 京城府行政區域擴張에對하야 京城府社會課長 柳重植 京城府會副議長 李升雨

◇同八時 野談 尹白南

◇同八時四〇分(東) 체로獨奏 (無伴奏)組曲第一番 빠하作 前奏曲 알레만드·메누엣 三第一番 쿠─란트·메누엣 第二番 사라반드·지─그 콘스타치·샤피로

◇同八時五五分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孔明歌 三、寧邊歌 四、긴아리 五、방아타령 崔貞子 金翼紐

◇同九時 回心曲 河龍男 金壽

◇同九時一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列時調 崔日元

第一放送

◇午前十時三〇分(大)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東)和洋合奏

◇同一時 家庭講座

◇同六時(名)이야기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大)아시베흠

◇同八時四〇分(東)체로獨奏

◇同八時五五分(東)浪花節

### 二日(木曜)

◇午後〇時五分 名作小說朗讀 가실 李光洙作 李翼

◇同二時 普專合格者發表

◇同三時一五分 講演

◇同五時 延專合格者發表

『森林의淨化』 李元賠

◇同六時二三分 趣味講演

◇同六時 피아노獨奏 李慶元

◇同七時三〇分 講演『記念植樹日을마지하면서』京畿道産業部長 李根蕩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沈淸歌中『船人따라가는데』 尹泰彬 林小香

◇同八時三〇分 平壤歌外 一、平壤歌 二、방아타령 三、사발가 四、도라지타령 五、六、노래가락 六、청춘가 笑琴 金德鎭 鼓手 韓成俊 細笛 高載德 短簫 鄭海是 李眞紅 崔壽成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同〇時〇五分(秋)名曲의 멘돌

## 讀者室

▲左記書籍相當한代價로讓受코자하오니 有意分은 全南長城郡 [illegible] 鈴泉里 金英一에게로 一報仰望

記 七、吉禮要覽 全一冊

一、高等法院判決錄 昭和五年分 一冊(第十七卷)

二、高等法院判決錄 昭和六年分 一冊(第十八卷)

三、朝鮮法制史稿 淺見氏著 一冊

四、六典會通原文 洋裝製一冊

五、朝鮮不動産用語略解 一冊

▲저는 平易한樂曲을편곡하는中 피아노 노래를가지신분으로 共同으로편곡하실분이게신지요 一週日一時間가량이면족합니다 京城府蓬萊町四丁目壹貳壹 崔當壽

▲本人이 朝鮮民謠를 硏究하오니 一般讀者 諸氏는 各各地方의民謠를 本人에게 적어보내주시면 表謝를 進呈하겟사오니 아시는대로 몃首든지 左記住所로 꼭좀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京城府敦義洞一六〇 金慶洞

▲本人의親友로多年敎員生活하던中 뜻한바잇서 農村兒童을爲하야 獻身할篤志의 士잇사오니 農村兒童敎育의 스승을求코저하는니 左記住所로 通知하심바라나이다 一讀者 李承鈞 [illegible]

▲生은 當年二十歲되는靑年인데 將來醫師를希望하오니 어느분이시든지 有意하신분이 계시거든 採用하여주기를 伏望이외다 資格은 某中學에다니다가 中途退學하고말엇슴니다 京城府大門平洞一八番地 下宿 [illegible]

▲新義州林源秀氏 平南中和郡 [illegible]

▲漢天下小說家諸氏에게! [illegible]

▲朝鮮日報今年一月八日、同十一日字 第三面一枚 [illegible] 李書景

▲喜來이나、副業으로養鷄를 希望하시는분의게 드립니다 [illegible]

大、白廣善氏 [illegible]

◇同二時(東)婦人講座

◇同六時(東)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東)이야기

◇同八時三〇分 民謠獨唱

◇同八時五五分(東)浪花節

## 暦

四月一日(水) 三月建壬辰小(初十日) 癸丑·木·軫·開

●淸明四月五日(舊十四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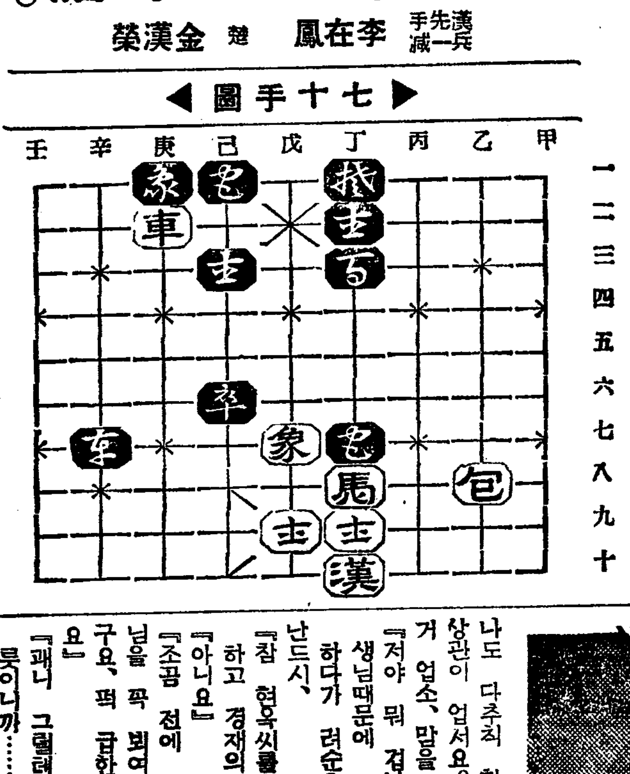
●穀雨四月二十日(舊二十九日)

●祭祀移徙裁衣上樑巳時에吉함

##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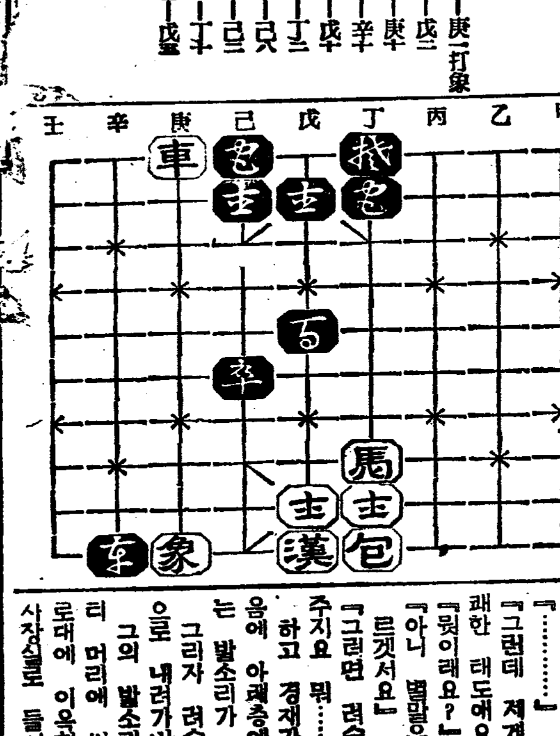
漢先手減一兵 李在鳳 對 金漢榮

◀第十七手圖▶



◀第十八手圖▶

庚二車─庚一打象
丁二包─戊二
戊七象─庚十
辛七卒─辛十
丁十漢─戊十
丁七包─丁二
乙八包─己八
己三包─己三
己八包─丁十
丁三包─戊三



## 黃昏 【50】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옥기는마음 [illegible] 경재는 금후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잇서서 사장의 한말을 좌다 들을필요가 잇다고 생각하며 거듭 물어 보앗스나 려순은 그저、

『선생님을 위해서 터말지 안켓습니다。못지마서요!』

『나를 위해서요?……그러나그』

하고 말을 막아버리려한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는게 아님니다。말하자면 나를 밋지못하는거겟지요。정녕 밋는다면 무슨말이든 못하겟서요?』

『그러기에、선생님을 밋느니만치 악가 최다 말슴 하지안엇서요。』

『아니지요。여러가지 말이다만 어슴거니다。사장이 이런말을 하지 안어요?……졀 천신이 낫부면 나도 생각이 잇다 저까짓 놈 아니면 싸워될 사람이 업슬테냐 재점은 내가 맥여 살리는데 그러케되면 월머고 사나 보자 죽고 사는게모다 내한손에 달렷다。려순이도 내말 안들으면 그날이 마지막이다……이런말을 하지요?』

나도 다추치 합니다。그러나 상관이 업서요。려순씨도 접넘거 업소、말을 틀틀히가지시우

『저야 뭐 겁날거 잇서요? 선생님때문에 그러지……』

하다가 려순은 별안간 생각난드시、

『참 현옥씨를 만나섯서요?』

하고 경재의눈치를 살핀다。

『아니요』

『조곰 전에 와다갓서요。선생님을 꼭 뵈여야 할일이 잇다구요、퍽 급한일인 모양이드군요』

『괜니 그럴려지요。라고난 버릇이니까……』

『아마 대으로 갓데나봐요。사장과 무슨얘기를 한참 하다가 총총히 나가버리드군요』

『……』

『그런데 제게 대해서도 퍽불쾌한 태도에요。하는 눈치가……』

『뭣이래요?』

『아니 별말은 업서도、보면몰르겟서요』

『그런면 려순씨도 마주 그래주지요 뭐……』

하고 경재가 말하고 잇슬지음에 아래층에서 누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여온다。

그리자 려순은 곳 아래ㅅ층으로 내려가버린다。

그의 발소리가 철벙철벙하가티 머리에 씨여지는듯 고요한 로대에 이윽히 서잇든 경재는 사장실로 들어가볼까 하다가는 두고 동대문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간다。

날은 발서 점으럿다。전기ㅅ불이 차츰 깜밧광채를 도둔다 가두의 라듸오에서 막걸리가티 걸걸한 귀거슬리는 소리가 호른다。……이거리에서 라듸오만 업서저도 행결 대길맛이 잇스련만……하는 생각이 삽시에 왓다。

째지는 처녀의의 하루가 지나갓스나 밤도 무던히 찌울쿠는 편이다。

너른 길에는 산보객들이 떼여친다。

이런 잡답한중에서 문득 무엇지 모르게 고독한생각이 몰밀듯 밀여든다。동시에 괴롬도 와닷다。비록 그것은 눈깜박사이에 지나지 안혀 지만 그괴롬은 파고 들어가보면『나는 웨 생겨낫든고?』하는 끗도 밋도 모를 김흔 괴롬에까지 부딋칠 것가튼 것이엇다。

그러나 다음순간──번뜻바닥에 터부디친 생각이 조고만한 력으로 치솟는순간 발파코 거게될리는 자기의모양이 그리고 려순의모양이 무심코 머리에 떠온다。……그러나 우리는 파연 그럴수 잇슬가?……하는 생각이 이어 뒤미처 온다。그는자기의이몽에 스스로 대답하야 무랍도 업섯다。괴롭지 안흘수 잇스랴?

득 불쾌한 생각이 나서 그대루 돌아나왓다。

려순이가 변소모퉁이에서 바라보며 경재의시선이 그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것도 알지못하고 그는 머리를 숙이고 걸어나왓다。해길 사람들새이속까지 그러케 걸어나오든 그는

『앗!』

하고 머리를 처든다。전차가 쓰르릉하며 바로 코압흐로 쓰처지나간다。

『어듸로 갈까?』

하며 그는 또 한참 지향업시 걸어갓다。

그리다가 별생각업시 한강행 전차를 집어탄다。

혹 무슨 신간서적이나 잇나는 생각으로 조선은행압헤서 전차를 버리고 진고개로접어들엇다 그리하야 책사라는 책사는 거진다 쥐보앗스나 볼만한 책이라구는 하나 어터만날수 업다。

명치정에 잇는 책점에까지 들러본다음 길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황금정에 나와 전차를 탈까하다가 그만

## 各學校入學試驗問題

### 海州公立女子高普

國語科 (讀方) 第一回其二

三、次ノ文ヲヤサシイ文ニ書キ改メナサイ。

論語は、曾參と有若との門人等が孔子及び其の高弟の言行を集錄したるものにして、最もよく此の大聖の面目をうかゞふを得べし、今此の書によりて其の一端を述べん。

四、次ノ漢字ノ右ワキニ讀ミ假名ヲツケナサイ。

競馬場 明星 無沙汰 潔白 火種 臺本 波打際 建物 入置 目前

五、次ノ文ノ片假名ノ所ニ漢字ヲ書キ入レナサイ。

二度シ( )をアツ( )めて二度サン( )じたる鐵眼はツヒ( )にフル( )つて第三回のボシフ( )にチヤクシュ( )せり。鐵眼の シンメイ( )なる慈悲心とあくまで初イチネン( )をひるがへさざる熱心とは、强く人々をカンドウ( )せしめしにや、喜んでキフ( )するものイダワイ( )に多く、此の度はセイハ( )インサツ( )の業チヤクチヤク( )として進みたり。

國語科 (讀方) 第二回 其一

次ノ文ノワケヲ書キナサイ。

1、今此の書によりて其の一端を述べん。

2、此の語に現れたりといふべし

3、ひつきよう人を敎はんが爲なり。

4、ひどく氣をもんだ。

5、雲の峰面を封じてそびえけり

6、單調平凡な景色

7、安心して歸途に歸れ。

8、無雙の剛將。

9、晩年に至りて出仕の命を拜すれども辭して仕へず。

10、御手紙拜見仕候。

國語科 (讀方) 第二回 其一

次ノ文ノワケヲ書キナサイ。

1、今此の書によりて其の一端を述べん。

2、途に同行することに決せり。

3、白壁の民家其の間に點在す。

4、單調平凡な景色。

5、謝恩の爲に何か書がきて參らすべし。

6、色目も見えぬ破れ衣をまとふ。

7、一寸の蟲にも五分の魂。

8、我々の務ではあるまいか。

9、一軍今や崩れんとす。

10、御親切なる御手紙有難く拜見仕候。

國語科 (書方) 第二回 其二

綴方 題『時計』

(假名は平假名、文體は口語體)

算術 (第一時)

1、(イ)0.73×2.05

運算

(イ)答

(ロ)、0.0708÷[illegible]

運算

(ロ)答＿＿餘＿＿

2、(イ) $6\frac{1}{9}+1\frac{5}{9}-\frac{8}{9}$

(ロ)大小ノ順序ニナラベヨ。

$(\frac{7}{9}\ \frac{5}{9}\ \frac{3}{4})$

(イ)答＿(ロ)答大ナル方ヨリ

3、或日ノ夜ハ晝ヨリモ1時30分長イ。此ノ日ノ晝ト夜トノ長サハ各何程カ。

式 運算

答晝 夜

4、內法縱16Cm,橫25Cm,深サガ8cmノ箱ガアル。此ノ箱ノ容積ハ幾リツトルアルカ。

式 運算

答

5、2圓75錢ニ賣ルト1割ノ利益アル品ヲ2割儲ケテ賣ルニハ賣價ヲ幾ラニスレバヨイカ。

式 運算

答

算術 (第二時)

1、(13+2.9)×0.6−(2.7−0.78)+0.3

運算 答

2、$(\frac{1}{3}-\frac{3}{4}+\frac{3}{8})\times 1\frac{1}{23}$

答

3、$(1\frac{5}{7}-\frac{8}{21})\div(\frac{5}{6}+\frac{1}{3})$

答

4、或生徒ガ午前8時45分登校シ午後3時55分マデ學校ニ居タ。此ノ生徒ガ學校ニ居タ時間ハ何程カ。

式 運算

答

5、速サガ每時12.5浬ノ汽船ガ甲港カラ乙港マデ行クノニ$\frac{2}{8}$8時間カカツタ。甲乙兩港間ノ航路ハ幾浬カ。

式 運算

答

6、米4俵ト粟5俵トノ價ガ等シイトキ、米1俵ノ價ガ9圓15錢デアルト粟1俵ノ價ハ何程カ。

式 運算

答

7、直徑10cmノ圓壔ガアル、其ノ體積ガ1570立方糎デアルト高サハ何程カ。

式 運算

答

### 徽文高等普通學校

國語科 (小) 一回

一、左ノ文中ノ片假名ノ所ヲ漢字ニ直シナサイ

樺太は大陸のチツヅキなりや又はハナれ島なりや、世界の人は久しく之をギモンとしたりき。然るに其の實際をテウサしてカイケツしたる人、日本人の中よりアラハれぬ。

二、左ノ語ト相對スル意味ヲモツ語ヲ( )ノ中ニ一ツヅツ書キナサイ

(イ) 精良( ) (ロ) 獨創( ) (ハ) 高潮( ) (ニ)貧賤( ) (ホ)原告( )

三、左ノ文ヲ讀ンデ次ノ問ニ答ヘナサイ

君は書を以て一家を成せる人なるに、數年の間一度も筆を取り給ひし事なし。我もとより衣食の費をいとふにあらざれど、何時までもかくておはすべきにあらねば、今は何處へなりとも行きて君の技をふるひ給へ

(イ) 一家をなすトハ如何ナルコトカ

答

(ロ) 衣食の費をいとふにあらずトハ如何ナルコトカ

答

(ハ) かくておはすべきにあらねばノかくてトハ何ヲサシテイフカ

答

(ニ) 君の技トハ何ヲサシテキルカ

答

四、左ノ文中ニ誤ガアツタラソレヲ消シテ其ノソバニ正シイノヲ書キナサイ

障子をあげてみるとまだ雪が降つてゐる。机によりかかつて向ふの方をながむると、うねうねと續く岡が雨に煙つて、ぼんやりと遠く見える。

五、左ノ文ノ──線ノ所ヲ解釋シナサイ

七代七十餘年の帝都として、咲く花のにほふが如しと誇りし奈良の都も、(イ)色移り香失せて年旣に久しく、今は唯畿內の一都市として僅かに古の名殘を留むるのみ。然れども(ロ)春日の社頭、朱の廻廊山の(ハ)緣にはえて、森嚴自ら人の(ニ)襟を正さしむ

(イ) 答

(ロ) 答

(ハ) 答

(ニ) 答

國語科(小)第二回

一、左ノ文中ノ──線ノ語ニ讀假名ヲツケナサイ

彼の初一念は年と共に益益固く時には夜半までも薄暗い燈を便りに、經文をとなへながら一心にのみを振るふことさへあつた

二、左ノ文中ノ□ノ所ニ適當ナ漢字ヲ入レナサイ

我が國の國旗は、最もよく我が國□にかなひ、皇威の發揚、國運の隆□さながら旭日昇天の勢あるを思はしむ。更に思へば、白地は我が國民の□正□白なる性質を示し、日の丸は熱烈□ゆるが如き愛國の至誠を表すものともいふべきか。

三、左ノ意味ヲアラハス熟語ヲ漢字デ( )ノ中ニ書キナサイ

(イ) 天皇がおよみになつた歌( )

(ロ) 戰爭に勝つて歸る( )

(ハ) 人が死なうとするまぎは( )

(ニ) 草木を植ゑそだてる( )

(ホ) 總理大臣が發する 命令( )

四、左の語句ヲ用ヒテ短文ヲ一ツヅツ作リナサイ。

(イ)『心ゆくばかり』。

答

(ロ)『氣をもむ』、『いたましい』。

答

五、左ノ語句ノワケヲ書キナサイ

(イ) 話頭を轉ず。

答

(ロ) うき世をよそなるしづけき住居。

答

國語科(普) 第一回

一、左ノ文中ノ片假名ノ所ヲ漢字ニ直シナサイ

寺のエンサキに腰をオロして用意のベンタウを食べ、岩間にワくシミヅを飲んだ。

二、左ノ語ト相對スル意味ヲモツ語ヲ( )ノ中ニ一ツヅツ書キナサイ

(イ)迷( ) (ロ)需要( ) (ハ)貧賤( ) (ニ)權利( ) (ホ)和字( )

三、左ノ文ヲ讀ンデ左ノ問ニ答ヘナサイ

礎の川を白帆が二つ三つ通つて行く。あれは港の親船へ蜜柑を運んで行くのであらう、小春日和の暖さにとけて、其所らかも夢のやうに船歌が聞えて來る。

(イ)小春日和トハ何月頃カ

答

(ロ)とけるトハ何ガトケルカ

答

(ハ)其所トハ何ヲサスカ

答

(ニ)夢のやうトハドウイフコトカ

答

四、左ノ文中ニ誤ガアツタラソレヲ消シテ其ノソバニ正シイノヲ書キナサイ

午前六時聯隊は練兵場に整列し軍旗は莊重なるラツパの音に向へられて、夕風にひるかへつている。

五、左ノ文ノ線ノ所ヲ解釋シナサイ

イ 高く鼻つくいその香に
ロ 不斷の花のかをりあり。
なぎさの松に吹く風を、
ハ いみじき樂と我は聞く。
丈餘のろかい操りて、
ニ 行手定めぬ浪まくら、
百尋、千尋海の底、
遊びなれたる庭廣し。

(イ)答

(ロ)答

(ハ)答

(ニ)答

國語科(普)第二回

一、左ノ文中ノ──線ノ語ニ讀假名ヲツケナサイ

家族一同自分を圍み、別れの杯をあげて、晴の門出を祝つてくれた。

二、左ノ文中ノ□ノ所ニ適當ナ漢字ヲ入レナサイ

市街を見物して私の□に感心したのは、市民が交通道德を□んずることです。往來の□□な街上でも、よく警官の□□に從つて□進することがありません。

三、左ノ意味ヲアラハス熟語ヲ漢字デ( )ノ中ニ書キナサイ

(イ) 天皇がおよみになつた歌( )

(ロ) 戰爭に勝つて歸る( )

(ハ) 人が死なうとするまぎは( )

(ニ) 敵に見られないために立てる標( )

(ホ) 總理大臣が發する命令( )

四、左ノ語句ヲ用ヒテ短文ヲ一ツヅツ作リナサイ

(イ)『心身の鍛』。

答

(ロ)『ひたすら』『子供心』。

答

五、左ノ語句ノワケヲ書キナサイ

(イ) 長足の進步。

答

(ロ) 高光る日 御皇子。

答

(ハ) 肉 彈。

答

(ニ) 不歸の客。

答

算術科 第一回

(1) 次ノ式ヲ計算セヨ。 (運算、答)

$5\cdot3-\frac{7}{17}\times(6\frac{1}{5}-5\frac{3}{4}+\frac{2}{3})+4\frac{5}{18}$

(2) $6\frac{1}{2}-2\frac{3}{4}$ニ$3\frac{1}{2}-1\frac{1}{3}$ヲ掛ケタ積ヲ小數デ答ヘヨ。

(運算、答)

(3) 京城釜山間450.5kmヲ急行列車ガ京城驛ヲ午後3時ニ出發シテ其ノ日ノ午後10時50分ニ釜山ニ着クトスレバ此ノ列車ノ平均一時間ノ速サ幾kmナルカ。四捨五入シテ小數第一位マデ求メヨ。但シ途中ノ停車場デ停車シタ時間ハ皆デ20分デアル。

(式、運算、答)

(4) 甲乙二人ガ共同シテ2日間スレバ$\frac{9}{20}$ヲナス仕事ヲ乙一人デスレバ10日間カヽル。甲一人デスレバ幾日カヽルカ。

(式、運算、答)

(5) 或ル日、棒ヲ地面ニ直立サセタラ其ノ影ノ長サガ棒ノ長サノ$\frac{3}{5}$デアツタ。ソノトキ11.4mノ長サノ影ヲ持ツテキル立木ノ高サハ何程ナルカ。

(式、運算、答)

(6) 18圓ニ賣レバ2割ノ利益ガアル品物ヲ16圓50錢ニ賣レバ損益ノ步合ハ幾ラカ。

(式、運算、答)

算術科第二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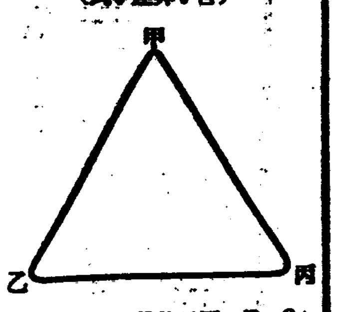
(1) 本校カラ京城驛マデ往クノニ、甲ハ徒步デ40分、乙ハ自轉車デ15分カヽル。甲乙二人ガ同時ニ本校ヲ出發シテ、乙ガ自轉車デ京城驛ニ着イタトキ甲ハ1875m遲レテキタトスレバ、本校カラ京城驛マデノ距離ハ幾Kmナルカ。(式、運算、答)

(2) 甲乙ノ所持金ノ和ハ270圓デ、甲ノ所持金ニ60圓ヲ加ヘルト乙ノ所持金ノ$1\frac{3}{4}$倍ニナリ、又乙丙ノ所持金ノ和ニ62圓ヲ加ヘルト甲ノ所持金ノ2倍ニナルト云フ。甲乙丙三人ノ所持金各幾ラカ。(式、運算、答)

(3) 甲乙二個ノ水槽ガアル。甲ニハ水ガ200立、乙ニハ水ガ48立入ツテキル。甲カラ乙ニ每分2立ヅツ水ガ流レ込ム樣ニシタラ何分後甲ノ水ガ乙ノ水ノ3倍ニナルカ。(式、運算、答)

(4) 圖ノ樣ニ甲乙丙ガアル。甲カラ乙マデノ距離ハ甲カラ乙マデノ距離ノ$\frac{7}{8}$デ、乙カラ丙マデノ距離ハ甲カラ乙マデノ距離ノ$\frac{4}{5}$デアル。甲カラ乙ヲ經デ丙マデ往ク距離ハ甲カラ丙マデ行ク距離ノ幾倍カ。

(式、運算、答)




(5) 200圓ノ品物ヲ甲ハ乙ニ2割デ賣リ、乙ハコレヲ5分損シテ丙ニ賣リ、丙ハコレヲ225圓72錢デ丁ニ賣ツタ。甲ト丙ノ益ノ步合ハ何レガドレダケ大イカ。(式、運算、答)

夕刊 十三

# 鎭海署員 夜學校를 襲擊
## 教員生徒 十餘名을 檢擧取調
## 事件漸次擴大形勢

【馬山】세상사리에 속출하야좋운(風雲)지대가 되여잇는 경남진해(鎭海)에는 지난 이십팔일도다시 진해서에서 아연활동을 개시하야 니동(泥洞) 야학교를 습격하야 교원、생도등 십여명을 검거하야 엄중취조하는일방 사건을 중대시한 진해서에서는 수뇌자(首腦者)중 한명은 도경찰부로 호송하고 그외중요인물1명은 마산서로 압송하야두고 극비밀리에 취조하고잇는대 내용은 국비밀에 부치고잇스나 추측컨대 사상적배경을가진 교원들이 무산아동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려고한 어떤비밀책동이잇는것이 탄로된모양이라하며 사건은 앞으로 확대성을 가지고잇서서자못중대시되고잇다한다

### 奉化〃아나〃事件의 關係者二名出獄

【奉化】봉화〃아나〃사건관계자 김창신(金昌臣)(三一) 김호문(金重文)(二四) 김덕기(金德基)(二五)등 세명은 소화팔년 봄에 봉화경찰서에 검거되여 동칠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이년씩개월의 판결을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든바 김창신(金昌臣)김중문(金重文)은지난삼십일에 오십일 가출옥을바더 출옥하야내성면해저리 자택에서 저양중인데 상상의외로 신체는건강하다한다

# 觀光仁川建設前提
## 土木工費大膨脹
### 產業道路下水溝改修等으로
## 三十四萬餘圓突破

【仁川】관광인천의시설과 시구화장등으로 밧갑지안흔부채액만이 증가하는형편으로 소화십년도현재를조사하건대 부채총액은 실로 오십구만이천이백이십삼원륙십일전에달하야 매년오만원식 변재한다하야도 십사개년을요한다 이를또한 부민각호에배정하야보면 매호의삼십여원의거액이다 이에금번도로부비는 작년보다륙만여원을증가한 삼십사만륙천사백구십오원에달한다는바 대략내용을조사하건대 그중에는구거비(溝渠費) 회방정매립(花房町埋立)본정신정(本町新町)로면개수비 하수비(下水費)등인데 그중금번신설의 공사를하게될것은 다음과갓다한다

◇第二產業道路=현재화정(花町)에까지 일으러잇는 경인산업도로를 상야(桑野)별장까지 연장하야 그곳으로부터 장내인천외공업지대 부천하의리(富川郡廣里)까지의 산업도로 공비륙만원과

◇下水工事=인천중학으로부터 송현리(松峴里)제방에일으는 하수구로 공사사만여원에 좌편에는 오간도로가 병행할대하수구공사에매 변당하는 북촌의중수에 개수키로되엇다한다로면하리라하며

◇路面改修=공비구만여원중에서우편국압으로부터 우각리파출소압까지일으든 북촌우일의조으로통의『베三맨三』가잇다는데 김의원으로부터 이에대하야 외리파출소로부터 상인천역까지요구하엿스나 예산의관계로 명년으로밀우고 우각도수장도로는 금년중원이라고한다

### 守巖書畫會

【義州】서화계에거성인 수암김유탁(守巖金有鐸)씨는 륙십여세의 고령으로 국경일대를 순방하는 로차에우선 의주에서 오는사월삼일 당지해동관(海東館)에서 서화회를 개최하기로한바 회비는 삼원이라고한다

# 大阪에서新義州까지
## 자살하려온男子
### 죽지못하고刑務所自願

【新義州】대판(大阪)으로부터 죽을 자리를차저 국경신의주까지 와다는 일본내지인청년——지난이십구일정오경 신의주경찰서에 나타나 한명의 일본내지인 청년이 나는 대판림상점(大阪林商店)에 점원으로잇든 복전춘웅(福田春雄)(二七)인데 삼년전부터 그상점의 금잔 오천원 가량을 주색에 소비하고 형의 할대가 자심함으로 차라리형무소로 가려 하얏스나 참아 갈수가 업고 국경으로가서 죽을자리를 차즈려고 왓섯는데 와본족 죽을만한 자리가업서 인력거를타고 그우에서 칼을 내여 배를 질너보앗스나 잘죽지아니함으로 형무소로 가랑으로 경찰서를 차저왓노라

고 하엿다 과연 그청년은 칼로배를 찔너 출혈이 만어서음으로 얼골이 창백하게되고 극도의 량심가책을 바든모양인바 즉시의사를 불너 응급치료 하게하는일방 사법주임이 동정잇는 취조를 시작하엿다고한다

# 仁川猫島近海에
## 漁港施設要望

【仁川】무역이천!공업이천!판파이천의 살목표로 제반시설을 착착진행중이든바 근자에는 인천근해수산물수확이 년 삼백만원을돌파하야 점점왕성하야가는 형편이나 종래부근부터는 서해안일대에 한곳의 어항시설조차업서 어민간에 적지안흔 두통중이든바 어촌부에서는 서해안중심지인 인천에 어항시설을 총독부에 요망키로 결의하엿는데 장소는

# 一日兩處에火災
## 住家三棟全半燒
### 水原邑梅山里에서

【水原】지난삼십일 오후세시경 수원읍매산리(水原邑梅山里)구십사번지 곽태의(郭泰翊)(七七)집에서 집응수리하는 일군에 점심밥을 짓다가 집부스럭이가 글둑속으로드러가 거긔에 불이붓터오르는것을 일군들이 발견하야 직시 소방대의 원조를어더 진화하엿는데 동오후 세시반경 또 그이웃 동리에사는 강운주(姜文周)집에서 불이이러나 부는바람결에 맹열히 붓허 그불길이 그이웃집 송영봉(宋榮奉)집에까지 옴마가 두채가 한거번에타버렷는데 원인은 강운주의 집나무간 솟부스럭이에서이러낫다한다

# 本報鐵原支局主催
## 全朝鮮蹴球大會
### 空前大盛況裡에終幕

【鐵原】본보철원지국의 년중행사로 개최된 제일회전조선축구대회는 화창한 초봄빗과 함께 이십팔일 오전십일시부터 철원공보운동장에서 입장식을 거행하고 만인의 관중에싸여 본보지국장조종규(趙宗奎)군의 사회로 대회회장대라 철원공보교장판창(板倉)씨의 렬렬한 개회사가 잇슨후 이여서 시구식을거행하야 대회도 인긔백파-센트에싸여 이십구일 오후세시반에결승전을 맛치엿는데 제일회의우승긔는 함경남도신고산군(新高山軍)에 도라갓다

# 渡航阻止問題等
## 三十餘案件可決
### 開會以來만은波瀾을演出하든
## 釜山府豫算會議終幕

【釜山】지난 십구일부터 개회된 부산부예산회의는 심의기간가진 파란곡절을 거듭한후 이십구일에 삼십삼건의 제안전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어에일본내지도항저지(渡航阻止)문제에 관하야 파전문길(坂田文吉)씨외 십팔씨로부터 당국의 일본내지도항저지로 말미암아 부산까지 왓다가 러비과라의 관계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못하고 부산에서 살길을 찾출려고 헤매고잇는자가 매년이천여명식 증가하야 가서 선주자들 특히 로동자들의 생활에 막대한협위를줄뿐아니라 가진폐해가 속출함으로 이대로 방임하야둔다면 불의의 재회를 초래케될터이니 그들이 려비관계로 고향에도라가고 십허도 못가는자에게는 려비를지급하고 사정으로말미암아 부산에 주거할수밧게 업는자에게는 적당한 직업을 주어서생계를 도모하도록 함이긴급한일인데 이대책은 도저히 부산부로서 할수업는 일이니 도항을 저지하는 당국에서 적의선처의 방법을 강구함이 당연한일이닛가 당국은 하로밧비 선처하라는 요망의 건의안을 제출하얏는데 마장엽치로가결하고 또록정유파이전(綠町遊廓)문제에 관하야 지전록차랑(池田錄次郎)씨외 십팔씨로부터 록정유곽급 목도유곽의 위치는 도시발전에 따라 풍기상 편으나 부적당하고 부내각처에 산재한 사창에별다름업는 음식점등도 풍교상급 위생상폐해가 막심하니 이를 일정한지구를 설정하야 집합케함이 극히 긴급한일이니 하로밧비 적당한대책을 강구하라는 요망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후 폐회하얏다는데 일반부민은 당국의 금후태도를 주목하고잇다한다

## 瑞山近海에서

【群山】대산긔선회사(群山汽船會社)소유 군산해운회사(群山海運會社)친급긔선 부사환(富山丸)(구백구십사돈)은 지난이십팔일 밤 인천항(仁川港)을떠나 군산으로 항해하야오든중 지난이십구일 오전열시이십분 농무(濃霧)로인하야 충남서산군 서산면(瑞山郡瑞山面)근해인웅도(熊島)와 리천하야잇는 가대암(加代岩)의 암초(暗礁)에 걸리여잇다는 급보가 지난삼십일 군산수

## 韓復渠氏刺客에被襲

【北平三十日發同盟】 山東省局은 ……

# 四月에白雪紛紛
## ——麥農을더욱憂慮——

【慶北】경북예천지방 에는 작일이래 예년에보기드문 치위로서 일반농가에서는 맥농(麥農)을우려하든바 지금은 삼월이 다지나고 사월이되엿는데 지난이십구일에는 긔후가 돌연졸변하야 백설(白雪)이 분분하엿는데 일반의 위생에도 관계가 마커니와 농가에서는 맥농을더욱우려중이라고한다

## 泰平農業實修校
## 校舍改築擴張

【寧邊】녕변군태평시(寧邊郡泰平市)에잇는 태평공립농업실수학교(泰平公立農業實修學校)는 금년도에 경비가천원예산으로 교사와 교원숙사 긔숙사 목욕실

## 元山初開講의
## 東西醫藥講座
### 講師는趙憲泳氏

【元山】원산긔독교청년회 공육부주최와 원산외약조합후원의 동서의약강좌(東西醫藥講座)는 사월이일부터 사일까지의 삼일간 원산광명보통학교(光明學校)강당에서 매야칠시반부터 개강한다는데 강사는 당대한의학계의중진인 경성 조헌영(趙憲泳)씨라는바 원산에서는 처음잇는일이니만큼 청자가다수에달하리라고한다

## 山에또怪火!

따라서 今後 ……과 로카르노條約國과의 交涉에對해서도 斷然 이國民的支持를 …… 白、英、伊等 ……

##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甲山支局 位置 甲山郡邑內 支局長 黃仁瓊

殷栗支局 位置 殷栗郡邑內 支局長 洪太模

江南支局 位置 廣州郡大旺面新村 支局長 朴載澤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鷺島分局 位置 高陽郡西■面■里三六四
右任分局長 鄭鎭泰
分局長 李宰晃
右依願解任

## 謹告

平澤支局 集金員 崔在學 右新任 / 集金員 趙炳稷 右解任

江南支局 總務兼記者 李鎬濱 / 顧問 權榮植 / 同 林己俊 / 同 林尙玉 / 集金員 李允東 右新任

鴻山支局 林川駐在記者 張錫宰 / 記者 朴鍾旭 / 顧問 金赫鎭 右解任

順天支局 總務兼記者 金鍾斗 右新任

沈村分局 記者 吳秉模 右新任

舍人支局 集金員 羅明夏 右新任

大同支局 總務兼記者 郭成元 右新任 / 總務兼記者 金昌瑞 右解任

青山支局 顧問 姜道軒 右新任

惠山支局 記者 睦斗熙 / 顧問 金錫禹 右新任 / 記者 楊世寬 / 顧問 盧弘周 右解任

羅津支局 總務兼記者 金道鉉 右新任

## 中等校合格者

### 江界農林學校

劉炳基 金昌淳 金用三 安載昊 李璟芳 韓圭昌 孫文憲 金昌龍 金在德 李昌蘭 洪官鏞 金澤富 都應鎬 李成奎 張寅傑 金庭潤 金錫俊 金錫河 李錫泰 朴殷稷 朴石玉 金顯濟 金普基 金鳳翊 朴載奉 金錫源 金泳鎭 盧光烈 金益恒 韓相彬 金榮 余瓚哲 康信煌 安義宗 李淳根 金明承 金鐵雄 東道永 李楷根 金河徵 田明駿 韓桂福 李聖熙 姜子正 徐鎭錫 李精彬 李星云 姜健興 田受雍 田受興

### 平壤醫學

韓昇璉 李景求 孫崑晳 朴潤彬 尹起五 鄭禹鳳 李炳現 金性熙 金太極 洪思德 咸明俊 黃孝俊 姜齊善 李奎熙 金基喆 尹瑤根 金暢權 文東燮 吳三用 吳熙秀 朴學鳳 朴南業 金丙淳 盧在昌 趙璟植 盧植 金玉淳 玄鎭圭 咸恒然 尹學 以上

## 地方人事

▲德久貞重氏(通川警察署警務主任)鏡路警察署長榮轉人事次本報通川支局來訪

# 慶南道唯一의
# 女子中等高普校
## 晋州教育界의큰자랑
## 一新女高
### 私立中等學校巡禮(八)

悠久한 歷史의고로맷스가잇고 南江의 비단결가튼 흐름이잇는 아름다운晋州! 이가운데 朝鮮婦人經營의 唯一한中等教育機關으로 二百名의才媛이 고히자라고잇는 學園이 곳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다

同校의沿革을 들추면 己未運動後 新思潮의影響을바더 向學熱이 한창膨漲할時 有志許萬正、河泳珍 姜建■氏外數十人의發起로서 처음男子高普를設立하라고 慶南一帶한全朝鮮人士의財力을 合하고 心血을傾注한 結合으로 五十萬圓의財團이 成立되고〃認可까지다되엇든것이 道當局의代償物비슷하게「學校를한아세우는것보다 돕하는것이조치안느냐」는 當局의方針으로 그만男子高普는 公立으로하게되어 基地五萬餘坪과 現金十二萬圓을 公立高普에提供한채 남어지三十萬圓을 財團人으로하여 새로一新女高普設立 開校하든해가 바로大正十四年이엿다

現在修業은 四年制로 아즉四學級이나 每年增加하는入學志願率로하여 昨年부터學級增加案이 提出되어 不遠한將來에 그實現을보게되리라한다

校舍는 붉은벽돌二層으로 右便에五百餘名을 收容할大講堂이 잇고 特別教室로 博物標本室、物理化學室、圖書室、家事裁縫室等이잇서서 內容設備가 모다充實하야 教材標本으로서 遺憾된點이별로업다 寄宿舍는 學校西便 길건너에잇서 他處生徒는 全部收容하도록되어잇다。

現在先生님은 모두아홉분、生徒數 는一百六十九名으로 그中今春卒業生이(八回)三十六名이다 學生들의氣風을 물어하면 在校生大部分이 農村女子라 農村에서純眞하게자란 그들이므로 그런지 모다純朴無垢하야 조곰도浮動性이업고 다못智德을 硏磨하기에 一意餘念이업는듯하다。

同校가오늘날 內容外樣이共히 充實하게된은 現校長白南薰氏가 近十年 同校를爲하는誠意와努力의가장큼이라하겟고 學生들이 모두儉素하고 健實함은 校長先生의高潔한人格과 儀範에感化함이라하겟다。

往訪한記者에게 學校施設問題로 白校長은 말하되「他校에 比하야 特別히나은點도 遜色될점도 업스나 教育施設이란 아무리充實하다 손치드래도 매양 이모자라못하지 얼마든지 그以上터할수잇는줄압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寄宿舍를擴張하야 學生들을氣分에맞는 明朗한構造로 改修하겟습니다 우리學校에 자랑갓이잇다면 그저學生들의 健實하고 柔順함이지요」라고 우스면서말한다 特別室에 陳列한各種의學生手藝品을보고 선뜻생가나는것은 昨年中同校創立十週年記念式에際하야 學生作品展覽會를數日間開催하고 一般觀覽에 供케하엿든바 各方面으로부터 만흔賞揚을博하야 子女教育에 對해조흔印象과 理解를 가게한점이다

用務를마치고 校門을나오는記者는 同校의 洋洋한將來를 마음으로 빌면서 이만한 巨大機關이 우리들힘으로運轉되어 나가는가하니 새삼스러이 거룩한듯김이 떠올랏다。(晋州支局一記者)

(寫眞…校舍本館과 現校長白南薰氏)

# 和協工作
## 山西侵入共產軍

【127】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공양공주가

『이차돈을 어찌하시라오?』

하고 못는 말에 임금은 눈물 번쩍 뜨시와 공주를 보시며、

『어찌하랴!』

하고 되 물으신다。

『아바마마。이차돈을 저군사들에게 내여주시라오? 이차돈을。이차돈을 내여주시면 저군사들은 이차돈을 가리가리 쪼저 죽일것을』

하고 밧게서 아우성하는 군사들의 소리에 귀를기우리고는 몸을치쳐지못한다。

『신라에 오직 하나 남은 이차돈을 이몸의 손으로 죽여? 그것은 아니 될 말이다。이몸이 목숨이 부러잇슬 때까지는 그것은 아니될 말이다。그런데 이차돈이 어찌해서 아직 아니올까。이 보아라!』

하고 임금은 부르신다。

어떠에 지밀나인이、

『이차돈 대사 대령하엿소』

하고 아로인다。

『어리 듧시라 하여라』

하고 임금은 이차돈에게 대하야 스승의 예로 경어를 쓰신다。

이차돈이 먹물드린 베 장삼에 다홍면주 쪽모은 가사를입고 들어와 무릎을 꿀코 임금과 왕후와 공주의 압헤 차례차례 합장한다。임금도 왕후도 다 합장으로 이차돈의 인사에 대답한다。

그러나 공주는 합장하엿던 손을 나즐 가리오고 울며 쓰러진다。

벌서 훤하게 밝아서 초스불이 비츨 잃는다。

임금이 무슨 말을 어떠케하실지 몰라서 주저주저하실 때에 이차돈은 한번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고、

『상감마마。이몸은 이제 두분마마께 하직을 사뢰오』

하엿다。

『하직이라니?』

하고 상감은 놀라시는 양을 보이고 왕후도 입을 버리신다。공주도 울고쓰러젓던 몸을 이르켜서 눈물 어린 눈으로 이차돈을 바라본다。

『저군사들이 이몸의 목숨을달나고아우성하오니 이몸이 궐문밧게 나아가 이차돈이 여긔 엿노라하면 아모 일이 업슬로 아뢰오』

하고 이차돈은 한번더 하직하는 절을 하엿다。

『안될 말!』

하고 임금은 손을 들어서 혼드시며、

『의로운 사람의 목숨을——그것 안될 말。찰하리 이몸의목숨을 버릴지언정 대사의 목숨을——그것은 안될말。지금 여숫 마을 늙은이 젊은이들이 다 모엿다 하니 이몸이 편전으로 나가서 저의들이 하는 말을들어도 보려니와——아모리 선마로와 알공이 여러 말을 하여서 짜노핫다 하여도 그래도다들 인형을 쓴 무리——또 이십년래 이몸의 은혜를 바든무리어니 설마 그중에 하나 돌이라도 의리와 인정을 아는무리가 잇지아니할까。아마 한마로와 이마로는 두 이손도 붙르기는 하엿스려니。이 두사람이야말로 덕잇고 공잇는 중신이 이몸도 그것을 노상 몰라본것도 아니언마는 간악한 무리의 말에 넘어가서、천생 타고난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충신을 멀리하고——어찌하엿스나 대사는 여긔 잇으오。연약한 여자들이 저러케도 애룽하는것을 위로하여주오。이보아라! 오 그러리。이러한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한데 모히면 저우이 마음도 든든하여지는 법이니—— 이보아라! 악아 네 동무들 달님 버들애기오 별님도 다 이리 부르렴으나。별님도 본래는 임금의 딸! 아아 미들수업는 임금의 자리。어서 다들 불러라。한데 모여안저서 엇찌 되나 하회를 기다려라。오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하터라도 이차돈은 내어주지못한다! 이몸은 이러케 말하려하거니와 대사는 여긔 잇어』

하며 임금이 일어나신다。

『상감마마』

하고 이차돈은 임금을 따라 일어나면서、

『상감마마 이몸을 공목과 알공에게 내어주시오。그리하시오면 반다시 나라에 일이 업고 불법이 질 행하오리다。』

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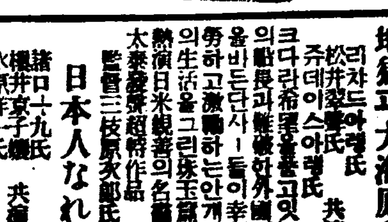
『그러기로 죄업는 사람을? 그것은 안될말』

하고 상감은 고개를 흔드신다。


定價 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青年訓練總革靴◇ 上等黑總皮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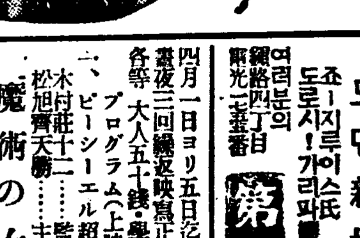
一足 三圓五十錢

耐久 二個年以上 絕對

鬼三枚底=總革學生靴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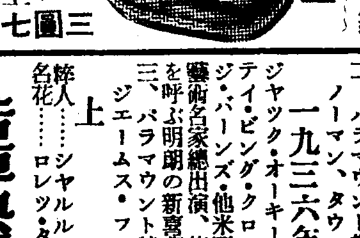


流行尖端總革 フレンチ型

フレンチ型 編上靴 四圓二十錢

本品은絕對로機械를使用치안코全部手製品이오 上等總皮底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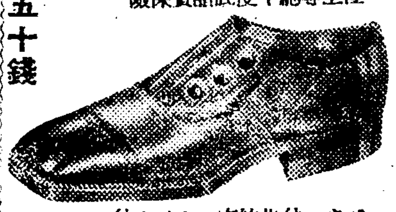


革靴 大爆發的 大景品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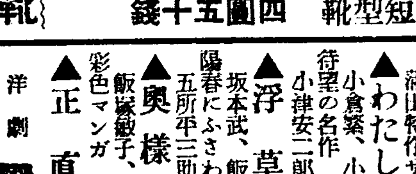
高級紳士 禮服用 總革靴

高級職工의手製요 原料의最良品으로 特選한것 以上은 一足十圓 十文半까지同價

深型靴 五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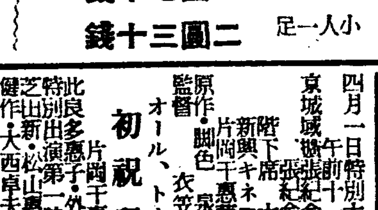
極上等總牛皮底品質保險



ボタン付先舶來エナメル付 短型靴 四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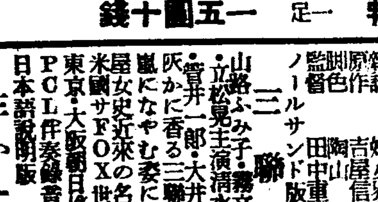
中學生專用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化學의精華 人力의妙) 最新發明 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二一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大衆料金 …… 地獄과大海原(音響版) 監督크로ー바 …… 共演

日本人なればこそ 太泉發聲超特作品 監督三枝源次郎氏 熱演日米親善の名篇!! 松井潤子氏 水原洋一氏 共演

모던新世帶 …… 共演

第一劇場

四月一日ヨリ五日迄若草劇更生週間 畫夜三回繰返映寫正午始映入替無 各等 大人五十錢・學生三十錢均一 プログラム(上映順)

一、ビーシーエル超大作全發聲版 魔術の女王 松旭齋天勝……主演 木村莊十二……監督 竹久千惠子、丸山定夫、滝澤修、赤木蘭子、御橋公、共演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一九三六年の大放送 ジャック・オーキー・リダ・ロベルティ・ビング・クロスビー・ジョージ・バーンズ・他米國ラヂオ藝術名家總出演、絢爛、豪華、春を呼ぶ明朗の新喜劇 ノーマン、タウログ監督

三、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上海 粹人……シャルル・ボワイエ 名花……ロレッタ・ヤング 主演 ジェームス・フラッド監督

若草映画劇場

四月一日より四月七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わたしのラバさん

浪花館 洋劇專門

●たけなわの春に捧ぐる傑作集● 蒲田特作サランド版 ▲わたしのラバさん 小倉繁、小藤田正一 ▲浮草物語 坂本武、飯田蝶子 小津安二郎作品 待望の名作 ▲奥様借用書 飯塚敏子、近衛敏明 五所平之助作品 陽春にふさわしき明朗トーキー ▲正直靴屋 彩色マンガ

四月一日特別大公開(晝夜三回) 京城城 張紀念特別名畫大會 初祝鼠小僧 片岡千惠藏 一人二役 主演 三聯花 山路ふみ子・霧立のぼる・御影公文 立松晃主演 清水將夫・歌川八重子・菅井一郎・大井正夫助演 ノールサンド版 監督 田中重雄

生かすか?殺すか? 日本語說明版 東京・大阪朝日新聞提供 米國サFOX社配給作品 PCL作奏錄音吹込

永樂町 中央館

經濟解說

# 〃米運賃協定〃 結局生産者搾取

申泰翊

朝鮮米穀商聯合會에서는 朝鮮米運賃協定을 復活키로 當業者의會議에 지난廿九日決定하엿다고 한다 昨年七月以來 自由競爭으로되어 오든것을 다시 무슨까닭에 米運賃協定을 復活치안흐면 안되게되는가 또는 이運賃協定으로 因한利害關係의點을 들어서 그의目標가 어느곳에잇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먼저 大體 米運賃協定이라함이 무엇이냐고 함을 알必要가잇다 이에對하야는 이미 屢次報道한바이잇슴으로 이곳에서는 簡單히 그輪廓만 말하는데 그치라고한다 朝鮮米는 年一千七八百萬石을 産出하여 가지고 이全部가 朝鮮內에서消費되는것이아니라 그中八九百萬石을 移出하고잇다 그럼으로所謂 쌀팔어서 좁쌀사먹는다는말이 생기게된理由가이곳에잇다 이와가티 移出되는쌀은 누구의손을 거치게되느냐 그러면 오늘에잇서는거의그全部가 米穀商의손으로 되고잇는터이며 또 移出은 거의 그全部가 日本內地로가는만큼 船便에 依케된다 그럼으로 朝鮮米移出은 米穀商과 船會社와의關係가 거의不可分으로되고 一面으로는 그利害가 相反되는關係가 마케되는것도 必然의勢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米穀商은 朝鮮米를 移出함에잇서 될수잇는대로 船運賃을 低廉하도록 되기를 바라고 船會社는 採算以上의運賃을 바드라고하는 것은 人之常情으로 恒常 兩者間의 運賃問題가 말성되는것은 거의不可避라고 할수잇다

×

그러나 오늘까지 米穀商과 船會社가 船運賃問題로 紛糾를 보아온것은 單純히 以上과 가튼 利害만으로서 생긴것이 아니라 이에잇서는 特殊의 事情이 잇슴을 看過할수업다 即 船會社가 同盟會를 組織하여가지고 朝鮮內米穀商으로된 穀物協會聯合會(지금에는 一部大農도 參加한形式으로 되어잇다)를 相對로契約하야 交涉的利益의 享受를 圖하여 왓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同盟한 船會社에 限하야 移出하는 朝鮮米의 積載를 하도록 契約하여주면 그代價으로 船會社는 米穀商에게 所謂「割戾」라는 名目으로 相當高率의 特典을 提供하겟다 는것이다 이처럼 너도좃코나도조흔方法을 取하는契約을하자고함에잇서 米穀商인들 應치안흘必要가 업서 米穀商對鮮航會(船會社同盟의名稱)間 不可分의關係를 맺저왓다 이로써 兩者間에는 何等의問題가 생길理由가 업슬것으로 생각할수잇다 그러치만 實際에잇서는 依然兩者間의말성은 안끈첫다 이것은 무슨까닭이 엇든가 하면 이곳에는 두가지의理由를 들게된다

×

▲첫재로 相互的利益의 異常을 보게된點이다 即 米穀商이 同盟에 參加하야 所謂其他 移出米의 積載를 制限하고 그代償으로 割戾는 그동안 여러번變化가 잇섯스나 最近의 內容을 보면 (一) 期末戾라고 하야 運賃總額에對한 三分을 船會社에서 바더오고 (二)累進戾(一名特別戾)는 百石當三萬圓에對한 二分 또 (三)萬圓이 넘어서 三萬圓마다 一分씩 增加하는 割戾金을 바더왓다 그러나 이것은 日本內地에 朝鮮米를 파는 朝鮮內米穀商에 限한것임으로 이것을 엿본 受荷主 即朝鮮米를 사가는 日本內地의米穀商은 이에對하야 不法을 가지고運賃을改正할때마다 朝鮮內 米穀商이 享受하고 잇는것과가튼 特典을 自己側에도 달라고主張하엿다 그래서 日本內地의 米穀商도 割戾金이란 特典에 한목을 보게되여 시작하엿다 이러든것이 結局 昨年에 財末戾와 累進戾란 名稱을 廢止하고 새로히 百石에 對하야 五分의 一括 戾金으로 一括하여 버리고 다시 이것을 半씩 나와서 一圓五十錢은 出荷主 即 朝鮮內米穀商 또 一圓五十錢은 受荷主 即 日本內地의 米穀商이 밧게되엇다

×

▲둘재로는 鮮航會分裂이란 點이다 同盟에 參加한 船會社는 米穀商에게 割戾金을 내놋는 것을맛고 獨占的橫暴를 할態度가 잇고말허서 運賃引上을 頑强히 主張하엿다 그래서 이에對한 不滿이 생기는이때에 非同盟의船會社 活躍이 相當하야 結局은 船會社의同盟이란것은 一部의分裂을 보고말엇다

―(續)―

# 新政策影響으로 耕地의 買氣旺盛

## 빠른것보다 土地投資가 有利

## 地價다시 昂騰繼續

農耕地는 二年來地價가 豊作과米價高에依하야 昨年까지에 相當한 昂騰을보엿는데 現內閣의 政綱에 依하야

(一) 低金利는 壓迫인듯 (二) 米穀關係法規의 强化에依하야 米價前途는 자못 樂觀되는것 (三) 證券投資等의 土地以外投資는 자못 危險視되는것 (四) 朝鮮內資本家는 土地投資에 對하야 자못 愛着心이만흔것

等의 理由압에 再次土地熱이 勃興키에至하야 農耕地에 依하야 買氣殺到하고 地價는 更히 昂騰을繼續하야 有力農耕地市勢는 漸次 日本內地畓市勢에 接近되는中이라고 한다

# 年度末公債總額 九十八億餘萬圓

## 每年十億圓식增加

【東京電話電通】昭和十年度도卅一日로서 끗이 나는데 今年度末의 公債總額은 九十八億五千三百萬圓으로 겨우 百億未滿에 머물넛다 도라보건대 井上緊縮藏相이 公債六十億方針을固執한 昭和六年末의 國債는 六十一億八千七百萬圓、그뒤 겨우四個年間에 三十六億六千六百萬圓으로 거의 一個年에 十億圓의 比例로 飛躍的增加를 본것은隔世의 感이 잇다

◇

지금에잇서서 馬場財政압에 公債漸減方針이 否定되고 國防費와 農村의 膨脹은 所定의 事實로되엿슴으로 多少의增稅가 잇고 업슴을 不拘하고 十一年度以後의 國債는 第二段의 劃期的膨脹을 보힐것으로 總額二百

# 滿粟市況

오늘(四月一日)로부터 粟輸入關稅는 繼續하야 明年三月末日까지 延長實施키로되엇는데 이에잇서서 오늘의滿洲粟市況을 드르면 다음과갓다

昨年度滿洲粟實收는 平年作의二割減收이나 再昨年度五割凶作에 比하면 約六百萬石이增收되엇 이며 産地各地의出廻順調、在庫漸增形勢로 市勢는 最高百斤九

# 法貨擁護에 注力

## 短期大藏證券發行擴大

## 財政上前途不安視

【巴里三十日發同盟】佛國政府는 國庫의 現金逼迫에 對處키爲하야 最近短期大藏證券의 發行限度를 百五十億法에서 二百十二億六千五百萬法으로 擴大하야 三十日에 다시 短期債券利率을 三分에서 五分로 올렷다 이것은 佛國銀行의 公定割引步合이 二十八日 三分半에서 五分로 올린것에 追隨한것으로 佛國銀行이 利上의 結果로 三十日의 金流出은 少額에 止하엿스나 一面金融專門家의 말에 依하면 佛國銀行이 直接間接 政府에 貸出한 額은 目下 百三十億法에 達할것으로 보면 政府는 最近 英國銀行에서 三十億法의 借款을 하엿스나 이미 이것을 消費하고 그뒤 全然、大藏省債券發行에 依하야 必要한資金을 捻出하는터이다 이와가티 專門家는 佛國政府財成上의 前途에 不安을 가지고잇게되엇다 그러나 技術的으로보아 佛國銀行은 法貨擁護의 힘을 充分히가지고 잇다 미드며 結局 法貨의 平價切下를 示唆함과가튼 金輸出禁止說를 一蹴하고잇다

# 佛國爲替政策의 不變更을言明

## ◇……卅日레니에藏相

【巴里三十日發電通】佛藏相레니에氏는 法貨平價切下說 金解禁說이 流布됨으로 三十日如左히 言明하엿다

佛蘭西가 自國通貨의 價値를 切下하던가 正貨의輸出을 禁止한다는 無根之說이 近來屢次傳하나 이는 純然한 臆測이다 佛國財政基礎는 完全히 强固하고 이 爲替政策을 投出할事情은 考慮치안는다

# 小作調停受理數

## 昨年度七千四百餘件

## 前年보다約二倍의增加

朝鮮內 十年度의 小作爭議調停申立은 總督府의 態度를 보면 小作調停令으로 因한 受理件數는 九年에比하야 二十割增加의 七千四百四十四件에 達하고 그內容을 보면 申立人別은 地主百四十五、小作七千二百九十七로 小作人의 申請이 九十八%를 占하고 事件의 內容은 小作權問題九十%인 七千六十一件으로 小作料問題는 겨우 三百四十六件 其他三十七件이다 當事者別로보면 朝鮮人間의 爭議가六千五百五十件으로 朝鮮內地主의 頑迷에對한 是正이 大部分을占한것이 判明되엇다 그러고 關係人員은 겨우一萬八千百九十四人으로 爭議가 限定된範圍內임을 보혓다 此等의 七千餘件中 七千百五十九件은 旣決되고八十%가 勸解에 依하야 成立되엇다고한다

滿電側의 希望과 總督府의 態度를 指示키로 되엇다 遞信局으로서는 이미 內面工作이 되엿슴으로 以上 今後는 될수잇는대로 兩社幹部의 交涉에 맷기기로하고 萬一 兩者의意見이 不一致될境遇에는 遞信局이 進出하야 斡旋키로 되엇스며 六月末까지 買收는 成立할모양이라고한다

# 米日爲替反騰

【經濟三十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休日前日과 比하면 賣二十八弗九十仙으로 五仙高이오 買二十八弗八十八仙으로五仙高이다

東京爲替(卅一日)

| | | |
|---|---|---|
| 對米 | 賣 | 二十八弗八分七 |
| | 買 | 二十八弗十六分十五 |
| 對英 | 賣 | 一志二片三十二分一 |
| | 買 | 一志二片三十二分一 |

▲大阪爲替(卅一日)

| | | |
|---|---|---|
| 對米 | 賣 | 二十八弗八分七 |
| | 買 | 二十八弗十六分十五 |
| 對英 | 賣 | 一志二片 |
| | 買 | 一志二片三十二分一 |

# 下旬對外貿易 千二百九十萬圓

【東京電話電通】大藏省發表에依하면 三月下旬對外貿易槪算調査는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 | |
|---|---|
| 輸出 | 八七、四六〇 |
| 輸入 | 一〇〇、四〇五 |
| 合計 | 一八七、八六五 |
| 入超 | 一二、九四五 |
| 一月以後入超累計 | 十二、五、四三七 |

億圓은 或은 七、八年以內에實現되지안흘가 觀測하며 달허서 오즉財政上의 國際信用의 惡化增大뿐만아니라 通貨金融 其他여러가지의 角度로 公債政策은 國民經濟에對하야 重大한 影響力을 相伴하고잇다

# 造船時代 躍增의數字

【東京電話同盟】産業貿易의伸張隆盛의 海運界에伴하는 造船計畫은 昨秋以來益擴大하야 各造船所는 造船所의 [illegible]

# 西鮮合同電氣 新義州電氣買收

【西鮮合同電氣】의新義州電氣買收問題는 過般 今井電氣課長이 渡滿한때 新義州電氣의大株主인 滿洲電氣와 折衝한結果 그實

# 生糸價의前途觀 今後는警戒域內?

最近生糸는 八百圓臺로 恢復으로 勝勢가 顯著하엿다 淸算은 事變後 再開今月二日의 先物 六百七十一圓이 底로서 昨年十月末의 最高價 九百九十一圓에서 三百二十圓 또新春高價에서 二百圓以上이나 棒下를 演한形勢로 이쫌의反落하나 下落

그러면市勢는 지금의 八百圓以上으로 얼마던지 올나가겟는가? 어듸까지 올을지 問題이나 要컨대 이市勢는反動의 反動에不過하다것다

高價에 需給이破綻되고 新年度의增産과 新繭低落觀測하고 一般이買安心으로되어 [illegible]

株價割로春換의 出荷力이 强한外로 減한때문에 輸出商이 實付에 大連算을生하고 또 寒時의 影響으로泰國의雪害 凍傷이宣傳되어 需給再認識의 量示現키에 至한것이다 그리고 高勝勢에拍車를 加한것은 內需要活躍으로 更히海外實需方面이 積極的으로 買進한다면 勿論 一段高價를 現出케될것이다

×

問題는 海外實需如何에잇는데 現物決算을 通하야 諸買物이 一巡되엇고 八百圓以上은 高價의 妙味도 적음으로 大高價

# 經濟界消息

○朝郵新船注文＝朝鮮郵船에서는 目下 唯一造船所間에 四千八百噸의 造船을 注文中인데 不遠商談이 成立될모양이라고

○貿易協會定期總會＝朝鮮貿易協會에서는 卅一日 午後二時부터 京城商議第一會議室에서定期總會를 열고 다음과 가튼 事項을 附議할터이라고

一、昭和十年度決算及昭和十一年度豫算承認의件

그리고 昭和十一年度豫算原案은 前年度보다 二千八百五十圓增加의 四萬三千八百五十圓이라고

# 中小商工業振興 商議答申案을決定

京城中小商工振興調査委員會는卅日 午後三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열고 商業、工業、金融의 三部門에 關하야 協議하고 答申決議案을 會頭에 提出하엿는데 그內容은 四月一日 發表할豫定이라고한다

# 紐育砂糖昂騰

【紐育三十日發商通】米國의 砂糖需給關係는 當業者의 所持一掃와 同時에 近來 强調를 呈하든비 當地의 製糖會社는 三

記錄的新高價出現

# 商況【卅一日】

# 株式 鈍狀裡에 採合

前場沈靜 今前場은朝新南待로 雙方積極的行動을 躊躇하야 不氣乘閑散의 區區商狀이엇스니 即東新은四十錢低인 百二十五圓丁 日産六十錢高인六十六圓二十錢에 各大引되고 [illegible]

# 北鮮製紙株와 朝鮮石油株

朝取證券長期短期淸算市場에左記兩社株式을 上場코저 申請中이던바 旣報와가티 認可되어 四月中旬頃上場키로 되엇다 即

▲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 十二圓五十錢 拂込四十萬株 資本金二千萬圓 昭和十年四月一日設立

▲朝鮮石油株式 十二圓五十錢拂込 二十萬株 資本金一千萬圓 昭和十年七月六日設立

右兩社株式은 朝鮮內에서公募된 것으로서 그株主는朝鮮內에도多數存在하며 右會社成立後右兩株의實買가 市中에서 盛行되고最近은 活況을示함으로써 이實情에 應하야 右株를 淸算市場에 上場하야 賣買하고 公定市勢를作成公表하야 取引界에 正常한指標가 되고저하는것이라한다.

×

北鮮製紙化學工業會社는 各種 펄프及紙類製造販賣를 營爲함으로써 主目的으로하고 그附帶로서 化學工業、鑛業、木材賣買、造林業、運輸業도 營爲하는會社로서 營業所는 京城黃金町二丁目 東拓빌딩內에잇고 東京事務所는 麴町有樂町三信빌딩에잇스며 工場位置는 水質水量其他所要事項에對하야 調査한結果 그敷地를 咸北吉州郡英北面南大川邊에 卜하고 工場及附屬用地로서 約十九萬坪을 買收하얏스며 이에 隣接한 河川敷地六千餘坪과 城津港埠頭敷地五百餘坪을 借入하얏는데 工場의 規模는 펄프年産 一萬噸 製造를 諸附屬設備에 關하야 設計着手하야 操業이 日日이라도 速키를 期코저잇다 이會社는 王子製紙의 直系會社로서 社長藤原銀次郎氏等 日本內地有力者로 重役을 삼고 朝鮮人重役은 取締役

# 後場軟保

後場은大阪 長期休會、短期一時間立會로 當地도 早引한바 閑散保合이엇스니 即前引에比하야 東新三十錢低인 百二十四圓七十錢 日産十錢低인 六十八圓十錢 拓新十八圓二十錢에 各大引되고 朝新二十六圓六十錢에 大新七十三圓八十錢 安取八圓丁

# 新甫待로區區

蘇滿國境問題、佛國金本位動搖等이잇고 積極的好材料업서 今前場은 下旬處入을二百九十四萬圓으로 減少된好感도업시 新甫待로 商狀區區로 依然 秋風에 三億圓大增資이나 지나치게悲觀하야 今月十日再開以來 大棒下를演하고 겨우 死線을넘어서 多少安定되기는하얏스나 疲弊가크니 一、二個月의靜養이 必要하며 時間的으로도 實過反動誘發程度의 整理市勢로 보아 大差가업을것갓다

# 軟派의大勢觀

株式市勢의 大勢는 큰意味로天井을지은것으로 今後의 政局情勢인플레進行狀態等에依하야 相當한反戾는 勿論期待할수잇스나 急激하던 緩慢하던 間에何如間에 惰에變化가생길것만은 누구나否認하지못할것이니 株式豪華時代는 보기가 不可能할것이다 現在의 諸株配當이 相當히 大幅減率으로되고 社債와가튼 지경에至할것을 覺悟할하다.

# 殖銀理事分擔

殖銀의植野理事死去에 伴하는理事의 補充에對하야 八月의 定期總會前에 臨時總會를 열고決定할모양인데 于先植野理事의 擔當事務를 다음과가티 林、野田의兩理事가 分擔키로되엇다

▲林 理 事＝産業金融、檢査

▲野田理事＝證券、計算

# 朝郵利益

朝鮮郵船會社에서는 三月卅一日로서 今期決算을 끗내이는데 今期業績은 下半期의 三百七萬圓을 突破하야前年同期의 三百七十萬圓程度에는達할것으로 豫想되는데 今期에잇서는 新京丸의坐洲、劍山丸其他의損失이 氷으로因한 劍山丸其他의損失이 매우 만허 差引純益은 前期와 가튼 程度로될모양이며 結局配當은 五分据置로 될모양이라고

# 今日財界(卅一日)

◆米(單位錢)

| | | |
|---|---|---|
| 仁川正米 | 先限 | [illegible] |
| 大阪期米 | 先限 | [illegible] |
| 三等米 | 一石 | [illegible] |
| 正租(仁川) | 一等 | [illegible] |
| 一斤價 | 三等 | [illegible] |

◆市中金融(單位厘)

| | |
|---|---|
| 一覽拂 | 壹錢 |
| 手形 | 壹錢 |

◆株(單位圓)

| | | |
|---|---|---|
| 朝新 | [illegible] | |
| 東新 | [illegible] | |
| 日產 | [illegible] | |

◆商品(先物單位錢)

| | |
|---|---|
| 大阪綿絲 | [illegible] |
| 大阪棉花 | [illegible] |
| 大阪人絹 | [illegible] |
| 大阪砂糖 | [illegible] |
| 고무 現 | [illegible] |

千二百九十七株外에 漢城銀行一萬二百株 朴興植氏株等이다(以上十年九月末日現在)

×

朝鮮石油는 石油國策의 一로 助成의附帶된會社로 日本石油株式會社로서 原油輸入關係로보아 이會社의事業은 投機性이 相當한 性質을帶하고잇스며 朝鮮人重役은 金季洙、朴興植兩氏가 잇는데이會社는 京城黃金町 朝鮮取引所內에 事務所가잇스며 株主名稱를 公表치안는다。元山工場은 昨年六月十七日起工 着手하얏는데 不遠完成되라는 一面에 나오리라하며 石油에 對하야는 朝鮮서 獨占的販賣權을 가지고잇다

×

朝取證券部 實物取引에나타난 朝鮮의 最高價는 朝鮮石油十七圓八十錢 北鮮製紙十九圓六十錢이 잇고 三十日의 實物取引市勢는 朝石十六圓九十錢 製紙十七圓九十錢이었다。

#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르미三三 ▲鹽水港新一三〇 ▲東洋拓殖三六〇 ▲電化新三五〇 ▲川崎造船三〇 ▲川崎重工[illegible] ▲石川島新三〇 取引高一八〇枚

#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月末關係로軟派의處分買物이 散見되어 五分利도五錢乃至十錢引締되엇스나 其他는모다 保合이엇다

| | |
|---|---|
| 甲五分利 | 一〇一、〇五 |
| 佛貨四分利 | 一九〇、一〇 |

# 大阪四市場休會

大阪綿絲、棉花、人絹、砂糖의四市場은 當限受渡로 卅一日前後場共히 休會이엇다

# 期米 小弱裡에 納會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三十一圓五十四錢止와共히 當市場은 三十七錢에 場을止한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五十錢인 四丁反高를報하고 十九圓三十六錢인 一丁低로場을 始한後 阪地稍漸低弛로 結局四十一錢에納會함을 伴하야 二十六錢까지下押하엿다가 三十錢에 場을止하엿다

# 大體春惱商情 非弱이면保勢

朝鮮의短期貯藏의解除되後 本月에入하야는 中旬頃부터 産地의 賣物이 現出하기始作되엿다 이

# 來月當限一考 今回受渡보고

日本內地米作으로서 五千百八十萬石의 收穫밧게아니되는 大凶作의 翌年인昨年春季를 回顧하면 四、五月頃의 渡米壓迫을加한바 적지안혓슴으로 今年에도 그와가튼 渡米威脅의 市勢가업지안흘가한다 今回에 納會된當限의受渡를 觀하면 總受渡高가萬餘石으로 丸福及 金太其他數店의渡米가 相當한威力을 加하엿스나 ⑦와 金太를中心으로한當地力武精米所와 阪地潮先一派의 受方勢力이 또한 相當하야 比較的 平穩狀態로 納會되고阪地受渡는勿驚！萬餘石으로 渡方의 主力은 馬越、受方의 主力은潮先이어서 또한兩方의 勢力이相通하엿다 그런데 來月에入한後의當限戰은 또何如할것인가？一考를要할 라할 顯著한數量은 불수업스나 그러나 春暖期가 刻一刻으로接近되여 오는만큼 持久的態度를 取하지못하고 積極實出하는 關係로於蒙間實勢 威壓을加하는 등이업지아니하며 一方正租와玄米는 依然農家實情의 餘裕이업지아니하야 强調를 維持함으로 實安心할수도업는 現象에잇다 그러나 農村 都市의在來狀況을보면 日本內地及 朝鮮을 不問하고 昨年同期보다 潤澤한편임으로 아무리實情한다 할지라도 農村에서 消費한 남어지쌀은 平均賣又는 一時的實急如何를不拘하고 結局集散市場으로나오고 말것이며 또는殘存米의數字가 昨年보다 增加만큼 첫재人氣가 無謀히强化되지는 안흘것이다 더구나 春惱의商情을 表現할時期에 入한만큼 此邊에 西重伸惱의 保勢를 示하지안흐면 一段反落을 告하지안흘가 한商談이 濃厚하다果如何？

# 市場六感

株 市況은 漸次閑散의빗이보이어小幅往來市勢觀이만코 큰일치는後의 뒤收拾에들어가는 모양▲二、二六事件가튼 突發事變은 암만 硏究해도할수업는일이다▲市勢가 小幅이되면 株式의 實質硏究가 必要타는 말이잇다▲將來의 株式市勢는 去益複雜하야各個의 株式市勢가 各各特殊事情에 依하야 動하는傾向이만흐니 閑散時代는絶好의硏究時代라는말▲日鑛減配日産拂込을떠들고 事變以來不況에도 意外頑强을 日産을賣叩

米 今回의當限受渡는 當地는一萬餘石 阪地는七萬四千九百石、渡方으로相當한 馬力을내 엇거니와 受方으로서도 相當히對抗▲그런데 그受渡兩方의 主力側은 當地는丸福 正米部와 金太正米部의 渡米로 受方은 力武精米所及 阪地潮先一派이오 阪地는 馬越渡、潮先의受米▲이와가티 兩方의勢力이相通한마큼 市勢도 平穩裡에서 終幕을告하엿스나 來月의 當限戰은또 何如할모양?

하야보앗스나 會社는減配나拂込을모다 問題삼지안코 昨日來다시頑强▲四月市勢는 果如何?

▲此에對하야 冷靜히 一評을 내린다하면 大體本年의 殘存米가 昨年同期보다 增加임으로 農家가 아무리 實情한다할지라도 渡米蒐集이 容易치못할것은 아닐것갓다 두고볼일▲昨年四五月頃의 渡米壓迫이 過言이 아님으로 渡米威壓의時勢를남겨 노앗다 하여도 엇섯든前鑑으로보아서 來月末의 一落이잇지안흘가한다▲當限이떠러진後 中先이 俄然軟態에傾하는 光景이니 此는 來月에떠러질前提? 아마도 春暖期의市勢이만치 昂騰하리라 고 斷言할수는업는걸

# 堂島前場不勢

【大阪電話】硬軟雙方共히 專혀正米事情을 注視하고 積極的으로 손을대지안허 閑散氣乘薄場面에終始하고 僅히 田中貞中東側의賣物로 市勢動하얏슴에不過하고 一般으로 新甫待의態度이엇다

▲賣方＝東京側 田中貞 中東側

▲買方＝朝鮮側 株式側 地場投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中限　◇買方

| 賣方 | 枚 | 中限 | 買方 | 枚 |
|---|---|---|---|---|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先限

| 賣方 | 枚 | 買方 | 枚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各地新甫豫想

今年의殘存米는 昨年同期보다 潤澤하므로 春季에들어서 持米割이아니라도 渡米壓迫을 우리實情하기까지에 當하지안흘것이 임으로 來月末에入하야 渡米壓迫의 一落을當하지안흘가한 觀이업지아니하다

明一日에 發會될六月限 新甫는如左히 各地一齊上新甫豫想이다

▲東京 大阪三十丁 三十丁 ▲仁川 大阪 神戶二十丁 三十丁 ▲下關 京都名古屋 二十丁 四十丁 ▲群山二十丁 木浦釜山十五丁 ▲金泉十丁

# 各地正米

京城下押 定期의銷落을기여高唱은 五錢下放인丸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四等二十八圓三十五錢 一等白米三十二圓五十錢

仁川弱含 前場依然한定期의 無活氣로 氣迷가깁흔三方大口取引이 殆無하야唱은 更히五錢下押인丸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四等二十八圓三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十錢

釜山不勢 定期의下押을보고 月末關係로 賣物薄으로不振이오 實物薄으로 不變唱이나 市場人氣는 弱하야 角ㄱ三等廿八圓八十錢 四等廿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卅錢

大邱軟調 實需不振에다가 定期의銷落을移하야 買氣一般委縮하고 唱은十錢軟化인 角ㄱ三等廿八圓卅錢 四等廿八圓丁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群山不動 産地는 相當히 賣氣가滯在하나 雙方共히 積極的進出이업고 沈滯場面에陷한湊ㄱ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木浦少弱 定期의 漸落을 보고 五錢低唱이나 來月期待로 取引皆無에相等한 場面을繼續한 丸本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仁川海岸町三ノ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趙俊鎬 米豆取引店

朝米株 光皿 東益復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534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應酬 送料先立

# 金融(卅一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勢◆ [illegible]

◆日本銀行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京城府中金融價◆ [illegible]

# 米穀(卅一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 商品(卅一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綿糸布◆ [illegible]

◆錦沸冲價◆ [illegible]

◆新穀粕冲價◆ [illegible]

◆시카고期米◆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 株式(卅一日)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六、一〇〇 累計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 期米(卅一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京城 仁川 群山 木浦 大邱 釜山 新義州 鎭南浦 元山 成興 馬山 平壤 釜山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